11

주체103(2014)

루계 제303호 월간

 ISSN 1727—9062

전 선 행 렬 차

2. 기적소리 울리며 렬차는 달리네 렬차는 달려가네
차창밖엔 드넓은 기름진 전야와 새 집들 보이네
마주 오는 그 모양 순간에 지나가지만
이 가슴엔 못 떠나네 소중한 모든것
라 라라라라 조국을 안고 달리는
라 라라라라 전선행렬차여

3. 기적소리 울리며 렬차는 달리네 렬차는 달려가네
이 나라의 자식들 어머니조국 위해 용감히 나가네
람홍색국기아래 태여난 젊은이들이
그 기발을 지키여 한목숨 바치리
라 라라라라 조국을 지켜 달리는
라 라라라라 전선행렬차여

차 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군민대단결의 힘 · · · · 3
군민대단결의 뿌리 · · · · · · · · · · · · · · 4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 · · · · · · · · · 6
대를 이어 걷는 길 · 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차광수가 찾은 길 · 10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활 · 12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시고 · · · · · · · · · · · · 13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성 · 14
불멸의 꽃, 더욱 커가는 세인의 관심 · · · · · · · · · · · · · · · · · · 15
《장생》과 《백옥》 · · · · · · · · · · · · · · · 16
수요가 높고 맛좋은 식료품을 생산 · · · · · · · 18
흥겨운 일터 · · · · · · · · · · · · · · · · · · 20
영웅을 낳은 모교 · · · · · · · · · · · · · · · 22
12련승을 한 처녀쏘프트볼선수들 · · · · · · · · 24
어머니의 모습 · 26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 28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 29

편 지
다시 만날 그날을 그려봅니다 · 31

조국의 품에 안겨
눈물과 땀방울 · · · · · · · · · · · · · · · · · · · 32

고향소식
청춘기를 맞이한 고장 · · · · · · · · · · · · · · · 34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2) · · · · · · · · · · · 36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보여준 계기 · · · · · · · 39

인상기

조국의 앞날은 창창하다 · 42

꿈이 많은 고국 · 42

한모습 · 43

수 기

행복의 메아리를 싣고 살리 · 44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3) · · · · · · · · · · · · · · · · · 45

민족의 향기

박에 담는 생각 · 46

《농가집성》 · · · · · · · · · · · · · · · · 47

야 화

마 십 굴 · · · · · · · · · · · · · · · · · · · 48

사 화

곽재우의 안해 · · · · · · · · · · · · · · · · 49

처음으로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 · · · · · 50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 · · · · · · · 50

력사인물

애국적감정을 노래한 고조기 · · · · · · · · · · · · · · · · · · 52

조선의 특산

개성고려인삼 · · · · · · · · · · · · · · · · · 52

조국통일과 민족의 운명 · · · · · · · · · · · · 54

북남관계파괴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 · · · · · · · 55

통일애국의 길에서 · · · · · · · · · · · · · · 56

상 식

어떤 사람들이 게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 · · · · · · · · · · · · 45

유모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 48

조선속담 (**조금성**) · 56

조선속도를 창조하는 군민대단결의 힘

지금 조국은 조선속도창조의 열기로 들끓고있다.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자!》, 이 구호높이 평양과 원산 등 각지에서 사회주의문명을 노래하는 창조물들이 일떠서고있고 조선동해와 서해의 수산기지들을 비롯한 도처에서 눈부신 생산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그리고 세포와 청천강일대 등 많은 곳에서는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조선속도창조, 이것은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발휘하는 새로운 진군속도로서 조국의 강성국가건설과 맥맥히 잇닿아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오랜 세월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준엄한 언덕을 넘고 세기적변혁의 큰 산들을 넘으며 자기 발전의 력사를 빛나게 수놓아온 군대와 인민이다.

나라없던 그 세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인민들은 굳게 단결된 힘으로 침략자일제를 물리치고 민족해방위업을 빛나게 이룩하였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이 고귀한 전통은 1950년대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을 피로써 사수한 3년간의 전쟁속에서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고 그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군대와 인민은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일심단결의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였고 80년대속도, 희천속도와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단결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에만 놓고보아도 조국에서는 극도에 달한 미제의 발악적공세를 과감히 물리치면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련이어 이룩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과 같은 현대적인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섰고 과학, 교육, 체육, 보건 등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전반적분야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 비약의 기상이 높이 떨쳐질수 있은것은 실로 군민대단결의 위력의 과시였다.

군민대단결은 오늘날 조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를 계속 이룩할수 있게 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동시에 새로운 조선속도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계속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의 모습이 이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강원도의 세포와 평강, 이천땅에서 벌어지고있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은 드넓은 세포등판을 단 몇해안에 개간하고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기성의 관념, 보통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이 거창한 건설에 군대와 인민이 함께 어깨겯고 나섰다. 그들은 건설장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기계수단이 모자라면 함마와 정대로, 맨손과 등짐으로 토양을 개량하였고 살을 에이는 강추위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언땅을 갈아엎었다. 횡포한 자연을 길들이며 풀판을 조성하고 현대적인 축사며 살림집들을 건설해가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어이 세포지구에 강성번영의 새봄을 남먼저 불러오려는 애국의 열망과 의지가 가득차있다. 그 열망과 의지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어떻게 해서나 지연시키려는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에 파렬구를 냈고 한해에 1 000정보씩 개간하여도 기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계산법을 훨씬 릉가하여 한해에 수만정보나 되는 인공풀판과 자연풀판을 조성하였다.

그 나날 군대는 인민의 앞장에서 건설의 제일 어렵고 방대한 과제를 맡아나섰고 인민은 군인들의 정신, 군인들의 기질, 군인들의 본때를 본받으며 하루작업계획을 스스로 높이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서로 돕고 이끄는 미담들이 수없이 꽃펴나 군대와 인민은 정과 사랑으로 더욱 굳게 단합되였다.

이러한 화폭은 세포지구만이 아닌 조국의 곳곳마다에서 펼쳐지고있다.

지금 인민군군인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그리고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길에서 어렵고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맡아 힘있게 해제끼고있다. 그들은 사상정신과 문화, 일본새와 생활기풍 등 모든 면에서 사회를 선도할수 있는 본보기들을 계속 창조해나감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쳐가는데서 주동이 되고 선구자가 되고있다.

군인들이 지닌 정신, 그것은 1990년대 중엽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의 나날에 발휘된 혁명적군인정신이다. 당시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차디찬 물속에 뛰여들어 무너져내리는 암반에 가슴을 내대기도 하였고 굴이 무너졌을 때 며칠동안 물길굴속에 갇혀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며 최고사령관의 명령관철에 자기들의 모든것을 다 바치였다.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 그리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것이라 하여도 불가능을 모르고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단숨에 해제끼는 군인들의 일본새는 인민들을 감복시키고 사회에 널리 일반화되여 기적적인 성과들을 수없이 낳았다.

올해에만도 수많은 성과들이 다계단으로 이룩되였다. 색색의 타일로 건물의 외부를 장식하고 매 살림방에 가구들까지 현대적으로 갖추어놓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며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새롭게 일떠섰고 침실, 식당, 목욕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을 비롯한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이 180여일이라는 기간에 멋들어지게 일떠섰다. 그리고 15만석의 수용능력을 갖춘 5월1일경기장이 나라의 체육시설의 상징으로, 문명국의 체모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건되였으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 많은 대상들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변모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서해의 수산기지들에서 《바다만풍가》의 노래소리드높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하였고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업과 경공업부문의 많은 단위에서 높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현재 평양의 쑥섬이 과학기술의 전당이 자리잡을 과학의 섬으로 몰라보게 변모되여가고있는것도,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이 용을 쓰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있는것도 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에 그 비결을 두고있다. 참으로 조국땅에 펼쳐지는 오늘의 시대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조선속도가 창조되는 벅찬 시대이다.

이 시대의 앞장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군민협동작전으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지난 2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에서도 그이께서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을 박력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단결로 시작되고 전진하여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단결의 위력으로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이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지금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려는 열렬한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세기와 세대를 이어오며 더욱 빛내여온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를 힘차게 건설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군민대단결의 뿌리

우리 조국에서는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군인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을 최대의 기쁨으로 여기고 인민은 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씩씩하고 고상한 기질과 문화를 본받고있다. 청춘남녀들은 그 어떤 명예나 대가를 바람이 없이 조국보위초소에서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의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여주며 로병들의 아들딸이 되고있다.

그 어떤 군사과학이나 기술로써가 아니라 오로지 참다운 사랑만이 만들어낼수 있는 군민대단결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무성한 거목밑에 뿌리가 있듯이 군민대단결은 백두전구에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의 지지를 떠난 군대가 결코 강군으로 될수 없으며 싸움에서 승자로 될수 없다는것은 항일혁명의 전기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진리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구호가 바로 《옹군애민》이다. 《옹군애민》이란 인민은 군대를 옹호하고 군대는 인민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어느해인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액목현 관지부근의 한 마을에 주둔해 있을 때의 일이다.

혁명군지휘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설명절이 박두한것만큼 메밀이나 감자가루를 구해다 명절날 국수라도 누를수 있게 부락에 나가서 식량공작을 하게 승인해주실것을 말씀드리였다.

한편 그 마을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과 함께 설을 쇠게 되였다고 기뻐하면서 온 동네가 떨쳐나 명절음식들을 성의껏 준비하고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끼칠 부담을 생각하시여 지휘관들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였다. 자칫하다가는 혁명군의 설명절음식때문에 마을사람들의 몇달분 농량이 축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어 부대에 철수명령이 내려졌다. 마을인민들은 서운함을 금치 못하며 인민을 위하는 혁명군의 소행에 깊이 감동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많다. 혁명군대원들은 전투를 하나 벌려도 인민들이 피해를 받을세라 세심한 관심을 돌렸으며 특히 적의 집단부락이나 성시를 공격할 때에는 인민들을 안전한 지대에 대피시키거나 적들을 주민지대밖으로 끌어내다가 소멸하군 하였다. 혁명군지휘관들과 대원들은 아사, 동사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민의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 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민들에게 량해를 구할수 없는 정황에서 감자 몇알이라도 파갈 때에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본값의 몇배에 해당되는 돈을 밭머리나 감자움에 남기군 하였다. 그들은 일단 주민부락에 들어가면 인민들을 도와줄 생각부터 하였지 대접받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신뢰심은 날을 따라 더욱 두터워졌다. 하여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으며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였다.

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에서는 장백인민들이 제일 앞장에 섰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을 거점으로 오랜 기간 항일무장투쟁을 벌릴수 있었던것도 장백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의 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들은 혁명군을 돕는 길만이 조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원군을 위한 일이라면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남들에게 뒤지지 않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을 혁명군에 보내는것은 원군정신의 최고표현이였다.

인민은 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 혁명군대오안에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철저한 복무정신이 확립되여있었기에 군민은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고 혁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조국해방의 날을 맞이할수 있었던것이다.

백두전구에 그 뿌리를 둔 군민대단결의 전통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시기, 사회주의대건설시기,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와 오늘의 강성국가건설시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자랑스럽게 이어졌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그 위력으로 백전백승을 떨쳐나가는것은 선군조선의 크나큰 자랑이다.

조국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과 뜻과 정으로 굳게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발휘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대

대성산기슭의 드넓은 부지에 자리잡은 중앙동물원에서 행복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껏 터져나오고있다.

원숭이관과 앵무새관, 파충관을 비롯한 동물사들에서도, 봇나무로 형상되여 이채롭게 뻗어나간 울타리들을 따라 펼쳐진 다님길에서도, 곳곳에 꾸려진 휴식장들에서도…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완벽한 체모를 갖추고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진 중앙동물원의 모습은 인민들의 얼굴에 피여나는 웃음을 위해 바친 인민군군인들의 창조의 구슬땀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한다.

군인들이 이곳에 본격적인 개건의 삽을 뜨던 때는 불과 몇달전이였다. 하지만 그들은 한삽의 혼합물을 다지고 하나의 부각장식을 해도 인민들이 즐겨찾는 이곳을 먼 후날에 가서도 아무런 손색이 없이 완성하기 위해 힘과 지혜, 열정을 아낌없이 다 바치였다.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적이 창조된 건설장의 벅찬 숨결은 주체적건축사상의 요구대로 건축물의 조형화, 예술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뜨겁게 안겨주었다.

건설장들마다에서 위훈을 창조해가는 군인건설자들

인민군대는 창조하고 인민은 그것을 향유한다, 이것이 오늘 조국의 모습이다.

조국땅에서 벌어지고있는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인민군군인들이 서있다. 새로운 비약의 속도, 조선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는 시대의 선구자, 돌격대가 되고있는 군인들의 가슴속에서 고패친 생각은 다름아닌 원민, 인민을 돕자이다.

군대가 인민을 돕는 원민!

부를수록 뜻이 깊고 돌이켜볼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간고한 항일의 혈전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에 든든한 뿌리를 두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더욱 활짝 꽃피워온 인민군대의 전통적기풍이 바로 원민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군대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할것없이 군대는 국토방위의 사명을 자기의 기치로 내세운다.

이런 사명을 안고있어 예로부터 군대는 물질적부를 축적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되여있었다.

그러나 항일의 전통을 이은 인민군대는 항일의 나날에 그러했듯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의 운명과 리익을 수호하며 자랑찬 길을 걸어오고 또 걸어가고있다.

그 자랑스러운 기풍으로 조국땅에는 참으로 많은 인민의 재부가 일떠서고 인민의 크나큰 행복이 마련되였으며 조국땅 그 어디에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수놓았다.

현대미가 나면서도 자연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꾸려진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아이들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말안장에 오르는 법과 말고삐를 쥐는 법부터 배우는가 하면 달리는 말의 률동에 맞추면서 주로를 따라 내달리기도 하고 또 말고삐를 틀어쥔채 어찌할바를 몰라하기도 한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터치는 탄성과 웃음은 승마구락부를 떠나갈듯 하게 한다.

가보지 않으면 일생에 한이 된다며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고있는 문수물놀이장에서도 사계절 사람들의 웃음이 질줄 모른다.

문수물놀이장 직장장 현영식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물놀이장으로는 하루 평균 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난해 가을에 준공

웃음넘치는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에서

메아리사격관에서

새집들이를 하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합숙생들

되였는데 겨울에도 여름에도 사람들의 물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문수물놀이장이야말로 사계절 흥성이는 곳입니다.》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뿐아니라 릉라곱등어관과 마식령스키장, 5월1일경기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등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인민군군인들의 창조의 구슬땀배인 체취를 절감하며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있다.

인민을 도와주고 그들의 행복을 가꿔주고 지켜주는것을 보람으로, 임무로, 사명으로 간직한 인민군군인들의 창조정신이 그대로 행복의 열매가 되여 인민의 얼굴에 꽃으로 피여난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든 군대, 인민이 그토록 자랑스워하는 군대가 바로 영웅적조선인민군 군인들이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조선중앙통신

인민군군인들이 짧은 기간에 건설한 은하과학자거리의 저녁

대를 이어 걷는 길

얼마전 우리는 원군사업을 잘하고있는 평안북도 정주시 상단협동농장을 찾았다.

농장에서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는 우리의 말을 들은 농장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군대를 돕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본분입니다. … 차라리 우리 농장의 박린규로인네 가정을 소개하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우리앞에 여러통의 편지를 내놓는것이였다.

그것은 박로인가정의 소행을 놓고 인민군부대들에서 농장에 보내온 감사편지들이였다. 편지들은 볼수록 감동적이였다. 편지들을 보면 박로인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거의 30년간을 그것도 한해에 여러차례씩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였고 지금은 그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하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만나보고싶어 농장일군에게 로인의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하였다.

수림을 등지고있는 아담한 집에 이르니 로인내외가 자식들과 함께 있었다. 온 가족이 편지를 읽고있었다. 알고보니 어느 한 인민군구분대에서 보내온 편지였다.

《… 아버님과 가족의 성의있는 원호는 구분대군인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여주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분대 전체 군인들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로인은 우리를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집안에 들어서니 주체91(2002)년 11월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에 참가하였던 로인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모셔져있었다.

임인실가정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말하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군대가 뭐 남입니까. 다 친자식들이나 같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들도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들입니다. 응당할 일을 했을따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은 너무도 적다고 하면서 《기자선생들이 본 그런 편지는 우리 농장의 많은 가정들에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농장일군이 이렇게 덧붙였다.

《박로인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 농장의 차봉옥선생도 부모의 뒤를 이어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성심성의껏 합니다. 말그대로 우리 농장에 그런 가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치원교양원인 차봉옥의 가정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쉽게도 도에서 진행되는 강습에 참가하고 집에는 그의 어머니인 임인실(70살)할머니의 내외만이 있었다. 터밭에서 도마도를 따던 그는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우리에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병사들이 보내온 사진을 보는 박린규가정

《군인들만 보면 모두 내 아들 같아요. 우리 봉옥이도 그저 제 친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 길에 나섰을뿐이지요.》

그러면서 그도 농장에 자기네 가정보다 원군사업을 더 잘하는 가정들이 많다고, 그 가정들을 소개해달라고 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임인실할머니의 가정은 전사자가족이였다. 군대에 나갔던 아들이 군사임무수행중 조국을 위하여 자기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쳤던것이다.

우리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들이 걸어온 원군길을 돌이켜보게 되였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인민군대원호를 공민적 량심으로, 의무로 간직하고 살아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인민군대가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더한층 강화되는것이 아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영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차광수가 찾은 길

(전호에서 계속)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후 화요파는 서울파와 대립되여 파쟁을 하면서 자파세력이 강하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준비하고있던 민중운동자대회 준비위원 72명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한적이 있었다. 이것은 령도권쟁탈에 피눈이 된 종파분자들이 공산당간부들의 명단을 일제에게 송두리채 넘겨준 공개밀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일제는 공산당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검거선풍에 의하여 화요파의 인물들은 거의다 감옥에 잡혀가고 말았다.

이 교훈을 망각하고 종파분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다시 공개적인 론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것은 명백하였다.

일본의 물정에 밝은 차광수는 정우회선언이 일본공산주의운동내부에 나타난 기회주의사상조류인 《후꾸모도주의》의 재판이라고 규탄하였다.

후꾸모도는 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리론투쟁》을 통해 순수한 혁명의식을 가진자와 불순한 사상을 가진자들을 갈라낸 다음 순수한 요소들만 결합하여야 한다고 력설했는데 그의 주장은 분렬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것으로서 일본로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였다.

차광수는 후꾸모도의 리론을 통채로 삼키다 못해 문장까지 그대로 본딴 정우회선언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종파분자들의 범죄행위에 환멸을 느낀 그는 류하로 갔다. 시골훈장이 되여 아이들의 머리에 민족의 정기나 넣어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결심했던것이다. 그러다가 최창걸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림에 나타나게 되였다.

이국땅에서 찬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차광수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수 있는 옳바른 투쟁로선과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력을 다 소개하고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주,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속에 공산주의운동을 할수 없을가? 분파와 헤게모니싸움이 없이 말이요!》

차광수의 그 부르짖음은 혁명의 길을 찾아 만리타향을 헤매던 끝에 그가 찾은 인생총화이며 교훈이기도 하였다.

나도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새 세대들은 종파분자들처럼 분렬의 길을 갈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격해서 말하였다.

차광수는 최창걸을 통해 나를 소개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우리가 길림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중학생이 맑스-레닌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며 공산주의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한번 중떠보려는 마음도 먹었다고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러니 푸접좋고 덜렁괄창인 그를 나는 처음에 뚝바우로 알수밖에 없었다.

차광수는 그후 인차 우리의 《ㅌ. ㄷ》성원이 되였다.

그해 여름에 나는 차광수를 신안둔에 보냈다. 신안둔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리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였다.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중에서도 몇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속으로 들어가는 첫 통로를 개척할수 있었다. 나는 차광수에게 그 과업을 맡기고싶었다.

내가 신안둔마을에 내려가 사업하라고 하자 차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골에 있다가 운동선을 찾아 모처럼 올라온 사람을 왜 도로 시골로 보내는가고 롱담절반, 진담절반으로 물었다. 남들은 서울이야, 동경이야, 상해야 하고 큰 도회지에서 돌아치며 운동을 하는것도 성차지 않아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며 바람을 일구는데 손바닥만 한 시골에 내려가서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그는 낡은 운동방식을 반대하면서도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나는 차광수한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 도시같은데 틀고앉아야 혁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리지 말고 가야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다,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있다,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국광복위업에 인민을 동원시킬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촌에 가서 사업하려고 한다, 국제당 같은데나 들락날락해야 공산주의자의 명분이 서는것처럼 생각하는것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을 존중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위업이 국제적성격을 띠고있기때문이며 로동계급이 국제적으로 단합되여야 국제적으로 결합된 자본의 철쇄를 부실수 있기때문이다, 오직 자기앞에 부과된 민족적의무와 국제적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투쟁한다면 국제당의 승인도 받을수 있고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는 조국광복의 날도 앞당길수 있을것이다, …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있다, 시골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국제당으로, …우로 올라가야 축에도 들고 그 무슨 인정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다, 무산대중을 위한 혁명을 한다면서 대중을 떠나 자꾸 우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로동자,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자.

《우로 올라갈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

차광수는 이 말을 혼자소리로 심각하게 되뇌이고나서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그것 참 신통한 발견이요!》 하고 부르짖었다.

차광수의 출현으로 하여 《ㅌ. ㄷ》의 핵심력량은 새롭게 보강되였다. 우리의 운동권에는 조선공산당 상층부의 거물들과도 실력을 겨룰수 있는 쟁쟁한 리론가가 등장한셈이였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3년유여의 세월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그는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신안둔, 강동, 교하, 고유수, 카륜, 오가자, 류하지방의 혁명화는 그의 이름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차광수는 처음에 길림주변조선인부락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였고 그후에는 길림을 축으로 하여 남만의 류하와 카륜, 고유수, 오가자를 비롯한 중부만주의 조선인거주지들에서 김원우, 계영춘, 장울화, 박근원, 리종락, 박차석 등과 함께 청년들을 집결시키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마지막무렵에는 안도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어느 고장에 가나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졌다. 군중성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사람들은 성미가 덜렁덜렁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말주변이 좋은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다. 차광수가 가르치던 사회과학과목의 교수는 삼광학교(고유수) 학생들이 제일 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군 하던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그는 청년학생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보급하였다.

백신한의 추도식에서 한 그의 추도사가 아주 유명하였다.

차광수가 제일 자주 다닌 곳은 신안둔이였다. 그는 한동안 신안둔의 길흥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 학감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이 마을농민들과 청년들, 부녀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였으며 그들을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소년회조직에 묶어세워 마을을 혁명화하였다.

신안둔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을 받고있던 곳이였다. 종파분자들이 이따금씩 가며오며 들려서는 《무산계급혁명론》이요, 무슨 론이요 하고 허황한 소리만 하기때문에 봉건유습이 강한 이 마을로인들과 어른들은 사회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머리부터 흔들었다.

그런 고장이여서 차광수도 처음에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남의 집 웃방을 얻어 도배도 잘해놓고 마실방을 꾸려놓은 다음 유식한 늙은이를 한 둬사람 골라가지고 로인들속에서 선전사업을 하게 하였다.

로인들은 밤마다 대통을 등에 꽂고 차광수가 꾸려놓은 방에 마을돌이를 오군 하였다. 그러면 차광수가 준비시킨 로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다가 《지금 세상은 나쁜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개변하려면 지주놈부터 없애야 해.》 하는 식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몇마디씩 하고 헤여졌다.

(다음호에 계속)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활

조국의 사회주의건설력사는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빛나고있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오는것이 조국의 모습이다.

조국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정치의 본질을 이루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정치의 우월성이 있다.

그것은 인민의 리익이 최우선, 절대시되고있으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속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건축물을 하나 일떠세워도 인민의 리익이 우선시되고 거기에 붙여지는 이름도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어울려지는 곳이 우리 조국이다.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인민극장, 인민병원…

창전거리의 새집들이경사가 어제런듯싶은데 또다시 과학자, 교육자들을 위한 거리와 살림집들이 보란듯이 일떠서고 현대적인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이 솟아났으며 훌륭한 문수물놀이장과 승마구락부, 스키장에서 인민의 환희에 넘친 웃음소리가 하늘가로 메아리쳐가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의 사랑과 믿음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더욱 뜨겁게 미치고있다. 가장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후대사랑의 새 전설들을 새겨가시는 원수님의 그 손길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고 학교와 야영소, 학생소년궁전들이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야영소들에서 마음껏 야영의 나날을 보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질줄 모른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아이들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새세대들이 강성조선의 역군들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기에 조국은 그토록 억세고 힘있는것이다.

오늘 조국에서는 천만자식들모두를 값높이 내세워주고있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일으켜 내세워주고있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시대의 공로자로, 영웅으로 자라나고있으며 인민들은 그 품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고있다.

이렇듯 조국인민들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가 구현되는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이 끝없이 빛나고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삶의 보금자리라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은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불패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힘있게 과시된 나날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고 엄혹한 자연재해와 경제적난관까지 겹쳐들었지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생명으로, 생활로 가슴마다에 확고히 자리잡았기에 군대와 인민은 하나로 굳게 뭉쳐 혁명의 붉은기 높이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해왔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이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자리잡고있어 조국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굳건하며 그 생활력은 더더욱 커가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평생이 깃들어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빛내여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야말로 조국인민들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참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실시되는 인민의 락원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문지성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내세우시고

오늘 조국땅에는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다.

인민극장, 류경원, 창전거리살림집,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하나하나 꼽아내려가느라면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할바에는 만점짜리로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이 뜨겁게 들려온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시하고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복무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다.

주체101(2012)년 5월 어느날 그이께서 류경원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대중목욕탕의 한 욕조앞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욕조안의 바닥우에 만들어놓은 턱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일군들은 영문을 알수 없어 그이만을 우러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인민들이 리용하다가 상할수 있으니 앉는 턱의 각을 없애라고 하시였다. 사실 앉는 턱은 직각인것이 상례이고 누구도 상할 위험이 있다는데 대해서까지 미처 관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민의 편의와 안전을 절대시하시는 그이에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무심히 대할 일이 아니였던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한 식당을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이 불편을 느낄수 있는 식당의자등받이도 지적해주시고 인민야외빙상장에 가시여서는 스케트날을 갈아주는 장소도 내오도록 하신 이야기, 아직 시공자, 건설자들도 타보지 않은 시험중의 삭도를 타시고 산새들도 쉬이 날아넘기 저어하는 대화봉정점까지 오르신 이야기 등 인민사랑의 이야기는 그이의 발자취가 새겨진 그 어느곳에서나 들을수 있다.

한없이 인자하신 그이이시건만 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침해당하는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이께서 주체101(2012)년 5월 8일 평양의 만경대유희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유희장구내의 보도블로크사이로 잡풀이 돋아나있었고 유희장의 원림상태와 유희기구들의 도색도 좋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일군들과 관리성원들의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이 령이 아니라 그 이하이라고 엄하게 말씀하신 그이이시였다.

만경대유희장은 인민들이 리용하는 곳인데 이렇게 방심해두고도 량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가슴아파하지 않는 일군, 인민들을 귀하게 여길줄 모르는 일군들이 천만명이 있은들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던 그이의 영상은 일군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후 만경대유희장은 훌륭히 개건보수되였다.

언제나 인민을 사색과 실천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날과 달을 보내시는 그이의 헌신이 있어 이 땅에는 인민들의 웃음이 꽃펴나고 세세년년 품어온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조국을 찾는 해외동포들은 보고 듣는것마다에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대하고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안철룡

조선민족제일주의와 민족성

민족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고유한 특성이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민족의 민족성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빛내여가려는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조선민족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게 된것은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물론 조선민족이 장구한 력사적기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지닌 민족성은 남달리 뚜렷하며 공고하다. 그러나 민족적단일성과 민족사의 유구성이 곧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절대적인 담보는 아니다. 지구상에는 다른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노예로 만들려는 침략자, 략탈자들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조선민족은 지난 세기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치렬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자기의 자주적존엄과 민족성을 피로써 고수하였다. 그후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성을 꿋꿋이 고수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세계의 《일체화》라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강도적궤변과 민족동화책동을 짓부실수 있게 한 정신적무기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수 없다. 조선민족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지구상에 《개혁》, 《개방》의 바람이 불 때에도 헛눈을 팔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책동이 우심해질수록 조국인민들에게는 자기의 수령과 당, 자기의 사상과 제도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빛내여야 한다는 비상한 자각이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졌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민족배타주의나 민족리기주의와 같은 편협하고 리기적인 사상정신을 배격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독자성과 지향을 최대로 존중하는 숭고한 리념이다. 조선민족은 지난 기간 이 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반제반미투쟁에서 언제나 세계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수 있었으며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길에서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었다.

조선민족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게 된것은 민족성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민족운명개척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수 있은 근본비결로 되였다.

우리 민족은 조선민족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성의 역할을 높여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왔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조국인민들로 하여금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민족성의 상징인 사회주의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그것을 끝없이 빛내이려는 자각을 지니고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 사상적무기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민족으로서의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나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 부르며 사회주의를 자기의 생명과 생활로 받아들이고 그 완성을 위해 억세게 투쟁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민족성에 기초한 전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게 한 위력한 정신적기치이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수 있는것은 민족성이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인민들로 하여금 민족성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과의 련대련합을 실현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게 하였다.

조선민족제일주의야말로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이는데서 중요한 정신적기둥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리영철

불멸의 꽃, 더욱 커가는 세인의 관심

《이번에 **김정일**화가 국제분재경쟁에서 특별전시상을 수여받음으로써 세계적인 명화로서의 명성을 다시금 떨치게 되였습니다. 경쟁에 전시된 **김정일**화는 전시한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정일**화가 전시된것으로 하여 이번 국제분재경쟁이 더 활기를 띠게 되였으며 박람회의 품위가 더한층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진행된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 국제화초경쟁조직위원회 총감독 리숙미가 경쟁에 참가한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 단장에게 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분재경쟁이라면 화초계에서 이름있는 원예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루는 권위있는 화초경쟁마당이다.

2014년 4월 25일에 개막하여 10월까지 진행된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네데를란드, 프랑스, 단마르크, 타이, 말레이시아 등 37개 나라와 중국각지의 40여개 화초단위의 대표들과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는 분재경쟁과 열대란꽃경쟁 등 여러가지 방법과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분재경쟁은 경쟁에 참가한 여러 단위와 개별적원예사들이 여러가지 형식으로 만든 분재를 출품하고 그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진행하며 개별적인 단체나 원예사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였다.

경쟁조직위원회에서는 **김정일**화분재를 심사하고 **김정일**화가 특별히 아름답고 우아한 명화라고 평가하면서 특별히 **김정일**화에만 특별전시상 상장을 제정하여 수여하였다.

그리고 국제열대란꽃경쟁에서는 **김일성**화에 금상을 수여하였다.

경쟁관에서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본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 경쟁사무집행 경리조리 왕자소는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인민들속에 태양화로 널리 알려진 조선의 명화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국제경쟁에 참가한것은 우리 경쟁조직자들의 자랑입니다. … 화초전문가들의 최대의 관심을 끄는 이러한 화초경쟁에 **김정일**화가 전시되여 특별전시상을 수여받은것은 **김정일**화의 아름다움과 조선의 위대한

2014青島世界园艺博览会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POSITION 2014 QINGDAO
朝鲜花卉协会
Korean Horticultural Association
荣获青岛世界园艺博览会组合盆栽国际竞赛
PLANT COMBINATIONS COMPETITION OF THE INTERNATIONAL HORTICULTURAL EXPOSITION 2014 QINGDAO
金正日花特别展示奖
SPECIAL AWARDFOR KIMJONGILIA EXHIBITION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에서 **김정일**화에 수여된 국제분재경쟁 특별전시상 상장(↑)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전시된 《조선원》을 찾은 외국인들(←)

《장생》과 《백옥》

얼마전 우리는 대외경제성 부원 리광일로부터 뛰르끼예의 한 기업가의 반영을 듣게 되였다.

《나는 선천성심장병질환으로 평시에 바로눕기도 매우 불편해하였다. 백약이 무효였다. …

지난해 봄 조선의 은행잎심장주사약을 한통 써봤는데 뜻밖에도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 숨가쁨과 부정맥이 없어졌다. 하도 신통하여 10통을 사용하니 온몸이 편안해졌다.

<백옥>이라는 상표가 붙은 약통겉면에 <장생>이라고 생산지의 이름이 밝혀져있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가 유명했다. 합영과 합작을 중시하는 기업가로서 나는 그 회사에 관심을 두고있다.》

이것은 조선장생합작회사에서 만든 약품에 대한 평이였다.

이곳에서 만든 약품들은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대단히 높다.

국내는 물론 중국, 캄보쟈, 몽골 등 아시아와 유럽에서 인기를 모으고있는 《백옥》상표가 붙은 《장생》제품, 여기에는 콩팥과 담낭의 돌을 녹여 없애버리는 파석교갑약, 당뇨병치료에 특효인 인삼택사당뇨교갑약, 각종 비루스성질병(에이즈포함)과 암의 예방 및 치료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테트로도카인주사약, 급성 및 만성알콜중독제거와 간보호에 좋은 해정차, 몸을 튼튼하게 하고 원기를 돋구는데 효능적인 경옥고, 만삼고를 비롯한 수십종의 고려약들이 있다. 이밖에 천연고려건강식품들과 은행잎술, 왕지네술과 같은 약술들도 있다.

하나하나의 제품들마다에는 회사의 많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지방간, 간경변, 간복수, 급성 및 만성간염등을 앓고있는 사람들속에서 호평받는 금인동근알만 보아도 여기에는 과장 채희경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고심이 어려있다. 그들은 먼 옛날 간어혈에 비방으로 써왔다는 첩약을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새롭게 제조하고 20여년간의 림상실천을 통하여 약의 병치료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과정에 《의방류취》, 《향약집성방》 등 고려의학고전들과 현대의학, 생물학, 화학 등의 기술문헌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연구발취한 도서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렇게 만든 제품들은 해마다 열리는 봄철, 가을철평양국제상품전람회들과 제1차 웰남국제상품전시회, 제2차 중국동북아국제상품전시회 등 많은 국제무대에서 금상과 상장들을 받았다.

사장 조현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름난 장생불로약의 비방들을 지적원천으로 하고 천연원시림에서 자라는 진귀한 약용동식물들을 원료로 하여 고려약들을 생산하고있다.

정성이 명약이라는 말도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인간의 건강증진에 모든것을 지향시키고있다. 특징적인것은 약을 만들 때 해당한 장기를 부활시키면서 동시에 전반적장기를 부활시키도록 성분을 조성하는것이다.》

《장생》과 《백옥》, 회사의 이 이름과 상표는 그대로 사람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는 이곳 종업원들의 깨끗한 마음의 증표인듯 하다.

20여년의 력사를 가진 조선장생합작회사(Fax: 850-2-381-4410 ICC-427 Tel: 850-2-18111-6133)는 평양시 대동강구역 옥류1동에 자리잡고 있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우리 중국인민의 흠모심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위인칭송의 꽃 김정일화가 만사람의 찬탄속에 세계적인 화초박람회, 전시회때마다 상장을 받은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보더라도 2014청도세계원예박람회에 앞서 3월에 열린 몽골국제화초전시회에서도 최고상인 1등상이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3월 6일과 7일사이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는 김정일화가 세계적인 화초박람회, 전시회들에서 받은 상장, 메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도 전시되였다.

몽골의 한 정부인사는 화초애호가로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꽃들을 보았지만 김정일화와 같이 아름다운 꽃은 처음 본다,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와 더불어 몽골과 조선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두터워지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오늘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꽃의 재배와 보급사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주체103(2014)년에만도 로씨야의 연해변강 아르쫌시, 나호드까시와 중국, 기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불멸의 꽃 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이곳에서는 전시회진행과 함께 꽃재배보급쎈터와 온실들을 마련하여놓고 김정일화의 재배와 보급에 자기들의 지혜와 정열을 다하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못잊어 그리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속에 김정일화는 불멸의 꽃으로, 태양의 꽃으로 온 세상에 더욱 만발할것이다.

본사기자

수요가 높고 맛좋은 식료품을 생산

요즘 평양시민들속에서 맛있고 영양가높은 《대하》상표를 단 식료품들에 대한 친근감이 각별해지고있다.

평양제1백화점과 광복지구상업중심 등 수도의 여러 상업봉사망에서 《대하》상표 식료품들이 첫선을 보인 때로부터 다섯달이 되나마나하다. 길지 않은 기간에 여러가지 모양과 맛을 가진 빵과 과자, 사탕, 고기제품들과 떡국대, 술, 맥주 등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있다.

지난 6월에 새로 조업한 운하대성식료공장은 보통강구역 운하지구에 위치하고있다.

공장은 한평생 인민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하여 일떠선 종합적인 식료품생산기지이다.

이곳 일군들과 생산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대하처럼 흘러들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대하》라는 이름을 달았다.

최신식식료가공설비들을 그쯘히 갖추고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된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당과류, 고기가공품, 청량음료를 비롯한 맛좋고 영양가높은 갖가지 식료품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생산의 동음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고기가공작업반에서는 송화란, 고기순대(돼지피와 고기, 흰쌀을 넣고 만든 고기가공품), 햄, 꼴바싸, 쌀라미 등을 생산하고있다.

작업반장 박철남을 비롯한 생산자들은 고기가공선동작업실에서 분쇄, 염침, 혼합, 주입작업후에 증훈로에서 참나무연기와 증기를 투입하여 제품을 완성하는데 매 제품에 따른 기술적지표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고있다.

사탕작업반 생산자들은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한사람이 한두가지씩 새로운 착상을 내놓고 서로 맛을 보고 평가하면서 좋은 점을 살리고 결함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 그들은 한달동안에만도 수십가지의 제품을 내놓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자작업반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얼마전부터는 쵸콜레트액을 입힌 락화생맛 꼬치과자와 같은 고급과자를 생산하고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 판매를 실현한 이 과자는 형태와 맛이 독특할뿐아니라 가격도 좋아 어린이들을 둔 어머니들에게서 인기가 높다. 미처 그 수요를 보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생산부원 엄철훈의 말이다.

빵작업반에서는 준공후 한달동안에만도 단빵, 식빵, 단설기를 비롯하여 수많은 제품들을 내놓았다.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하기 위한 일념으로 식료품생산을 다그치고있는 생산자들속에는 맥주작업반 로동자들도 있다.

대하맥주는 독특한 맛과 향기, 색갈로 하여 사람들의 호평이 높아가고있지만 맥주생산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질개선에 지혜와 열정을 아끼지 않고있다.

지배인 최진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의 사랑이 실린 대하의 흐름은 앞으로도 멈춤을 모를것이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의지를 안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그 질도 더욱 높여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흥겨운 일터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협의회

무릇 흥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락천가들이 일하고 생활한다.

얼마전 만경대봉화피복공장에서 우리는 해마다 년간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생활문화에서도 앞장에 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을 만나게 되였다.

그 어느 직장에서나 생산설비들이 구색이 맞게 줄을 맞추어 들어앉아있었고 산뜻한 작업복차림을 한 로동자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고 있었다.

현장의 곳곳에 놓여있는 화분들에는 물기를 함뿍 머금은 꽃송이들이 활짝 피여있었다.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도 재봉기들의 동음과 어울려 로동의 흥취를 돋구어주고있었다.

2직장의 경쟁도표앞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윤복은 이렇게 말하였다.

《로동자들의 문화생활수준이자 공장의 생산실적입니다. 로동자들 누구나가 생활의 즐거움을 알고 흥겹게 일을 하니 생산이 스스로 높아질수밖에요. … 공장의 생활문화에서 뭐니뭐니해도 우리 일군들이 앞장서는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옷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는것이였다. 그 하모니카는 20대 청춘시절 조국보위초소에서 군사복무를 하던 나날부터 오늘까지 언제나 몸에 간수하고 다니는 그의 애용품이였다. 6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이지만 그는 아직도 공장종업원들앞에서 하모니카연주를 전문가못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는 저도모르게 호기심이 동하였다.

그러자 그는 노래 한곡을 멋들어지게 불어제끼였다.

《재청!》

귀에 익은 지배인의 하모니카연주가 끝나자 현장의 로동자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지배인을 통해 그 일단을 엿보기는 하였지만 우리는 공장로동자들의 생활문화수준을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공장회관에서 관장 허성일을 만났다.

그는 공장에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힘있게 벌리는데 선동대원들모두가 공장적인 로력혁신자들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얼마전에 진행된 예술소품공연에서 1직장 재봉공 김희옥, 자재과 로동자 최경일이 출연한 재담 《우리는 로동자부부》가 공장종업원들의 흥겨운 로동생활을 충분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중의 절찬을 받았고 1직장은 해마다 두차례이상 진행되는 직장별 합창경연에서도 집단의 전투력과 문화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이 공장의 종업원들은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며 춤도 잘 출뿐아니라 대중체육활동도 생활화하고있었다.

배구경기에서는 3직장이 첫손가락에 꼽히였다.

재봉공들 대부분 가정부인들로 이루어진 이 직장에서는 점심시간과 하루일이 끝나면 배구장에서 직심스럽게 기술을 련마하여 이제는 모두가 한다 하는 선수들이 되였다고 한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의 심판과 체육기술지도수준이 올라가니 자연히 공장의 전반적인 배구기술수준도 한계단 올라가게 되였다는 이야기 또한 종업원들의 심금에서 울려나온것이다.

우리는 부원 리진동의 안내를 받으며 감나무며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들로 풍치를 돋구어주는 구내길을 따라 탁아소며 정양소, 식당 등에도 들려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고향과 일터를 알뜰하게 꾸리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는것은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방식이고 투쟁기풍이 아니겠습니까.》

만경대봉화피복공장에서 보낸 시간은 비록 길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불타는 애국심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었다.

알뜰하게 꾸려진 생산현장

글 본사기자 리 해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휴식시간에 진행되는 체육활동

공장에서는 군중문화활동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영웅을 낳은 모교

외국어학습시간

과외소조운영도 실속있게

얼마전 우리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을 때였다.

한 참관자가 강의를 마친 강사 공화국영웅 김승운에게 이렇게 물었다.

《영웅강사동지, 정말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동지의 모교는 어데입니까?》

《나의 모교는 남포시 항구구역 영웅한두초급중학교입니다. 우리 학교는 14명의 영웅을 낳은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항구문화도시 남포에 가거들랑 한번 꼭 들려보십시오.》

지나온 학창시절을 추억해보는듯 영웅강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리였다.

참관자들속에 있던 우리는 그로부터 며칠후 영웅강사의 모교인 남포시 항구구역 영웅한두초급중학교를 찾았다.

자랑많은 학교

교사는 크지 않았지만 학교가 이룩한 성과는 자못 컸다.

2층으로 된 학교의 1층 게시판에는 학교가 배출한 14명 영웅들의 사진이 나붙어있었다.

알고보니 김승운영웅강사는 학교가 배출한 첫 공화국영웅이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0(1951)년 2월 저격무기로 5대의 적비행기를 쏴떨구어 그해 3월에 공화국영웅칭호를 받았다. 그후 4명의 공화국영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신하고있는 9명의 로력영웅들이 배출되였다.

영웅들의 모습을 새겨보며 걸음을 옮기니 다른 한 게시판에는 이 학교를 졸업한 텔레비죤극창작사 인민배우 석성재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인민배우, 공훈배우들과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혁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들의 사진도 붙어있었다.

학생들이 이룩한 성과도 졸업생들 못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영웅학교의 영예를 빛내여가겠다는 결의를 담아 글작품집을 올린 2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김현웅, 장수정, 현성경, 한성범, 김성강학생들, 시적인 학과경연과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생소년예술축전, 알아맞추기경연, 서예, 소묘축전들에서 여러번에 걸쳐 1등을 양보하지 않은 학생들, 180여명에 달하는 7. 15최우등상수상자들은 이 학교의 실력을 가늠하게 하였다.

교원들중에도 10월8일모범교수자들과 새 교편물창안증, 새 교수방법등록증을 받은 교원들이 많았다.

학교교장 리용희(남)는 《이 모든것은 영웅들의 모교답게 그리고 학생들모두가 영웅들처럼 졸업후에도 삶을 빛내이도록 높은 실력과 고상한 도덕품성, 건강한 체력을 소유하기 위한 교수교양사업을 짜고든 결과입니다. 밑거름이 없이 훌륭한 열매를 기대할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영웅의 넋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영웅과 나》라는 주제로 작문을 짓고 이야기모임, 영웅,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도 자주 조직하고있다.

영웅들의 투쟁정신을 심어주며

15번째 영웅은 학교학생들의 하나와 같은 꿈이며 목표이다.

애국의 마음은 큰것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니다.

학교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남포시 인민군렬사묘를 찾아가군한다. 그들은 렬사묘와 그 주변의 잔디에 물도 주고 풀도 깎아주며 영웅들과의 마음속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는 영웅들과 렬사들앞에 떳떳하게 학과학습에서 모범이 될것을 맹세다지기도 한다. 학생들의 맹세가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고있음을 우리는 영어학습실, 자연과학실습실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느낄수 있었다.

전국적인 좋은 일하기의 앞장에는 언제나 이 학교학생들이 서있다.

주체47(1958)년 4월 400t의 파철을 모아 《소년》호 전기기관차를 기증한 때로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한 이 학교학생들은 길주-혜산사이 전기철도건설에 파동 33t이나 수집하여 보내줌으로써 주체66(1977)년 11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았다.

리지송학생은 영웅의 손녀답게 많은 파철을 모아 해마다 제철, 제강소들에 보내주고있다.

하루가 다르게 학생들의 공정적소행은 늘어나고있다.

이에 대해 윤영옥교원은 《영웅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학창시절부터 한계단한계단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쌓을 때 가슴에 영웅메달이 빛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웅의 모교라고 하여 영웅의 넋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 학교의 15번째 영웅, 아니 조국을 떠받들어나갈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12련승을 한 처녀쏘프트볼선수들

올해에 있은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모란봉체육단의 쏘프트볼팀이 또다시 1등을 하였다.

투수의 힘찬 공던지기와 채를 힘있게 휘두르며 공접촉정확성을 보장하는 선수들, 차례진 시간내에 있는 힘껏 달려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선수들, 수시로 변하는 경기정황에 맞게 로숙한 책략과 림기응변한 전술적대책으로 우승을 마련하는 감독의 모습을 관람자들은 손에 땀을 쥐고 보았다.

키가 쭉 빠지고 얼굴도 예쁘게 생긴 처녀선수들한테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가 하는것이 관람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집단력이 강하고 감독의 신호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모란봉체육단의 쏘프트볼팀, 이 팀이 자기의 첫선을 보인 때로부터 어느덧 17년이 되였다. 그 나날 모란봉체육단 쏘프트볼팀은 12년동안 국내선수권을 보유하고있을뿐아니라 1999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등, 2005년 상해국제녀자쏘프트볼강자대회에서 2등,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순위권에 입선하는 등 여러 국제경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오늘도 팀은 우승의 비결의 하나를 유연성보장에서 보고 여기에 우선적인 힘을 넣고있다. 하여 그들의 하루일과도 유연성보장을 위한 훈련으로 시작되며 그다음에 공잡기, 공던지기, 조약, 달리기 등 기초기술훈련을 진행하고있다.

자기들의 기술을 부단히 높여 경기에서 무조건 이기려는 박현옥, 리윤희, 김은향 등 이곳 선수들의 완강하고도 정열적인 노력은 투수의 공속도를 높이고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 타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훈련, 채의 휘돌리는 속도와 공접촉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에로 이어지고있다. 공접촉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만도 하루에 500~600번 지어 1 000번씩 하는 타격훈련은 온몸을 물주머니로 만들지만 그들은 모든 정력과 힘을 다 바쳐 훈련을 진행하고있다.

지칠줄 모르는 그들의 훈련열의가 그대로 경기마다에 이어져 그토록 좋은 경기성적을 안아올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팀을 이끄는 감독들의 강한 요구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장금석, 김창규, 강성희감독들은 언제나 세계를 내다보며 팀선수들의 기술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있다. 낮이면 낮대로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를 하고 밤이면 쏘프트볼종목의 세계적추세와 관련한 자료들을 파고들며 주체적인 기술과 전술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사색의 나래를 펼쳐가고있다. 사색과 탐구속에 그들이 도입한 우리 나라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훈련방법들은 팀의 기술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특히 감독 장금석의 창조적인 사업기풍은 선수들의 수준을 높여나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있다. 재능있는 야구명수인 그는 항상 선수들이 정확한 기초기술훈련을 한 다음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훈련을 해나가도록 요구하고있다. 그의 훈련계획에는 선수들의 육체적, 기술적능력의 공고화와 생물학적률동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 훈련후 회복기영양보충 등도 있으며 종목의 기술발전추세와 세계 여러 나라의 경기 및 훈련자료들에 대한 분석도 있다.

모란봉체육단 쏘프트볼팀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는 일본에서 살고있는 심대수동포의 숨은 노력도 깃들어있다. 국제경기를 할 때에는 그곳에까지 가서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고 조국에서 훈련할 때에는 그들의 훈련과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세심히 관심하는 그의 모습은 선수들로 하여금 기어이 경기에서 우승할 생각을 가다듬게 한다.

온 나라에 차넘치는 체육열풍속에 오늘 모란봉체육단 쏘프트볼팀은 감독들의 높은 요구성과 선수들의 드높은 훈련열의 그리고 심대수동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여 강팀으로 자라났다. 팀에는 10여명의 명수들이 있다.

오늘도 그들은 기어이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 높은 목표를 안고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어머니의 모습

쌍둥이자식들과 함께 있는 한성심

세상에서 제일 정다운 부름에 대해 물으면 누구나 어머니라고 대답할것이다.

하다면 어머니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전 우리가 평양9.15주탁아소를 찾았을 때였다.

따스한 해빛이 비쳐드는 놀이터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놀고있었다. 그가운데는 서로 마주앉아 세간놀이를 하는 쌍둥이어린이도 있었다. 한 어린이는 머리에 수건까지 척 쓰고 어머니역을 하고있었고 다른 어린이는 그를 상대로 딸역을 하고있었다.

-애야, 많이 먹어라.

-엄마, 난 엄마가 제일 좋아요. …

아직은 여물지 못한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며 제법 《연기》까지 해가는 두 어린이의 모습은 볼수록 귀염성스러웠다. 그들은 4살난 김현정, 김현영어린이들이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쌍둥이는 쌍가풀진 머루눈을 깜박이며 서로 뒤질세라 이야기샘을 터쳐놓았다. 어머니(중앙은행 부원 한성심)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박이며 튀기과자를 많이 가져다준다는 이야기, 배가 아파할 때면 따뜻이 덥힌 손으로 배를 쓸어준다는 이야기, 밤이면 자기들을 품에 꽉 안고 재미나는 옛말을 들려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주일에 한번씩 탁아소에서 집으로 가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1등으로 자기들을 찾으러오라고 말하군 한다는 이야기…

방긋방긋 앵두입술을 움직이는 쌍둥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누구나 태여나 처음으로 익히는 얼굴은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언제나 그윽한 정을 안고 살펴주는 사려깊은 모습이다. 비록 철부지 쌍둥이의 눈가에도 불면 날가, 쥐면 꺼질가 자기들을 애지중지 키워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깊이 새겨진것이였다.

언제나 환자들의 친어머니가 되여주는 김문숙

두 어린이를 마주한 우리에게는 지난 8월 어느 한 꽃매대앞에서 우연히 만났던 두 대학생자매가 돌이켜졌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 김은주와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학생 김은희였다.

그날 동생 김은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오랜 기간 소아과의사로 일해오는 저의 어머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으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한번은 저의 생일과 어머니가 담당한 환자의 생일이 겹친적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 환자에게 더 마음을 쓰는것이였습니다. 그러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고까운 생각까지 가졌었습니다.

후날에야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였고 언니는 어머니의 뒤를 이을 결심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저는 축하를 받기전에 먼저 우리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자매가 들려주는 어머니(현재 옥류아동병원 과장으로 일하는 김문숙)에 대한 추억은 자못 감동적이였다. 자기들이 어릴적에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량강도 대홍단군으로 자원진출한 수많은 제대군인들의 자식들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치료사업이 제기되였을 때 남먼저 출장길에 올라 석달동안이나 치료하던 이야기, 중환자가 생길 때면 병원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친자식처럼 돌본다는 이야기, 새로운 치료방법을 모색하느라 입술이 부르트도록 애쓰던 일이며 그 과정에 자외선병합으로 어린이폐염치료방법을 비롯한 1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를 하고 여러차례나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

맡은 일을 잘하여 집에서는 자식들의 생활의 거울이 되고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 그래서 더욱 어머니를 따르게 된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머니들에 대한 모습을 새삼스럽게 그려보게 하였다.

흔히 시인들은 어머니에 대해 노래하면서 어머니를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찾게 되는 품, 다심하고 인자한 품으로 형상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다 노래할수 없는것이 어머니의 모습이다.

우리에게는 취재길에서 만났던 김형직사범대학 력사학부 교원 박사 부교수 박정화의 모습이 되새겨졌다. 그는 외아들을 조국을 지키는 외진 섬초소의 군인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35년간 교원으로 성실히 일하면서 700여명의 제자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그 나날 아들은 군사복무를 잘하여 초소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고 제자들은 나라의 여러 부문에서 일군, 교육자, 박사들로 자라나 부강조국 건설에 한몫하고있다.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박정화

둘러보면 자식들이 훌륭히 자라기를 바라는것이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그 자식들의 값높은 삶이 바로 애국의 길에 있기에 어머니들은 한생토록 변함없이 자식들의 성장을 보살피며 뜨거운 모성애를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진정 여기에 어머니들의 참모습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얼마전 김만유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일군들로부터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에 입원해있는 한 청년(김용범)이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고실성형수술을 받고 20여년만에 귀가 열렸다는것이였다.

우리는 승강기를 타고 11층으로 올랐다.

김용범은 마침 처치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고있었다. 그를 처치한 의사는 간호원이 아니라 집도자인 과장 홍영호였다.

우리와 마주앉은 용범은 처녀처럼 해말쑥한 얼굴에 좀처럼 미소를 거둘줄 몰랐다.

《이렇게 귀가 열리기 전까지 나에게 소원이 있었다면 단 한번만이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보는것이였습니다. …》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뗐다.

24년전 용범은 자강도 화평군의 어느 한 산골마을에서 태여났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태여나서부터 늘 보채여 온 가족이 그를 꽃다발처럼 안아서 키우다싶이 하였다.

그가 왜 자꾸만 울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알게 된 때는 첫 걸음마를 뗄쯤부터였다. 용범이에게는 두팔을 활짝 벌리고 자기를 부르는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았던것이다.

량쪽귀가 중이염을 이미 경과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가 흘러 학교에 갈 나이가 다되였지만 용범은 말조차 번지지 못하였다. 두귀에서 때없이 흘러내리는 고름이라도 멈추어 다른 사람들곁에 다정하게 앉아있기만 하여도 좋을듯싶었다.

집앞을 감돌아흐르는 시내물소리도, 매일 아침 집뜨락 나무우듬지에 올라 좋아라 재잘거리는 새들의 노래소리도 전혀 들을수 없었던 용범이였다.

그의 어머니의 시름은 나날이 커만 갔다. 어머니는 자기가 구실을 제대로 못해 막내아들이 듣지도, 말도 못하게 되였다고 하며 자책의 눈물만 흘리군 하였다.

용범은 깊은 밤이면 눈물로 이불깃을 적시는 어머니의 눈물을 제손으로 닦아주며 서러운 마음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20여년세월이 흘러갔다.

어느날 용범의 어머니는 신문에서 김만유병원에서 중이염환자들을 수술적방법으로 치료하여 많은 성과를 보고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였다.

용범이는 즉시 평양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사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인사를 하고 떠날 때만 하여도 그는 20여년동안 굳게 닫겨있던 자기의 귀가 열리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었다고 한다.

단 한가지, 자기와 같은 병든 자식을 두고 마음고생에 몸부림치며 몇천밤을 눈물로 지새운 어머니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빛이라도 주고싶었던것이였다.

지난해 4월 18일, 김만유병원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 수술실에서는 용범이의 왼쪽귀 수술이 5시간나마 진행되였다.

수술은 과장 홍영호가 직접 하였다. 용범이는 최악의 상태였던것으로 하여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였다.

홍영호는 지난 기간 김용범이와 같은 환자를 2 000여명이나 수술하여 성공시킨 유능한 의료일군이였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고실성형수술을 수천번이나 하여왔지만 용범이와 같은 환자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수술하지 못했더라면 생명을 잃고도 남았을것입니다.》

악성중이염은 오래동안 쌓인 고름으로 하여 생긴 진주종이 골을 파괴하고 뇌농양이나 뇌막염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한 병이다.

의학계에서 첨단수술방법의 하나로 일컬어오는 고실성형수술은 년한이 오래고 성적이 높으며 리론과 기술, 기능이 뛰여난 집도자들도 어려워하고있었다.

한것은 5시간나마 환자와 한자세로 마주앉아서 수술을 해야 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1~1.5㎤밖에 안되는 고실안에서 미세수술도구를 가지고 신경결합조직들과 안면신경관, 동맥 등 위험구역들을 피하고 진주종을 드러내며 불량구간들을 제거하고 파괴된 조직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했기때문이였다.

수술후의 처치도 집도자가 하였다. 과장 홍영호와 의사 오은영, 김강훈을 비롯한 과의 의료일군들은 높은 책임성과 뜨거운 정성을 다하여 용범이의 일반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였다.

첫 수술이 있은 때로부터 보름이 지난후 용범은 귀에서 솜을 뽑았다.

처음 그에게는 자기를 부르는 홍영호선생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음향이 크게 들리였다.

어느날 용범은 고향의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전화를 하였다.

《어머니, 기뻐하십시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

그때로부터 6개월후 용범은 오른쪽귀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김용범은 평범한 청년의 마음속소원을 다 헤아려 풀어준 어머니조국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용범은 오늘도 사랑에 젖어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래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남포시 와우도구역에는 기상수문국 서해해양연구소가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서해해양연구소가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으며 아는 경우에도 관측원들과 연구사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있다.

그것은 그들의 관측자료들과 연구자료들이 불과 몇개의 수자와 기호들로 씌여져 예보라는 두글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때문이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망망한 바다에서 사나운 파도와 맞서 싸우며 그들이 보낸 무수한 날과 달들!

그것은 평범한 날들이 아니였다.

지구를 16바퀴이상 돈 거리

주체52(1963)년 6월 20일 서해해양연구소는 전문관측설비와 선박들을 가지고 해양연구의 첫발자국을 뗐다.

조선서해 경제수역과 린접수역에 대한 해양관측을 진행하는것이 그들의 임무였다.

그들은 매달 제정된 지점을 따라 해양관측을 하고 사람들에게 해양예보와 각이한 해양현상등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례년에 보기드문 해일과 이상기후현상들도 실시간별로 정확히 기록하였다. 심한 해일로 삶과 죽음이 맞붙어돌아가는 위급한 속에서도 그들은 바람과 파도관측을 중단하지 않았다.

연구소 관측실장 강영철은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많은것이 옛 추억으로 되였지만 지금도 풍랑사나운 바다 한가운데서 그리고 파도에 온몸을 가늠하기 어려운 속에서 권양기를 돌리며 관측을 진행하던 때가 어제런듯 방불히 떠오른다.》라고 말하였다.

관측은 바다에서만 진행된것이 아니였다. 그들은 창공을 날아예며 비행기관측도 진행하였으며 섬 및 연안답사관측도 하였다.

지난 50여년간 그들이 관측한 항해거리는 지

구를 16바퀴이상 돈 거리이며 비행관측항로는 6만 2 500여km, 간석지들을 도보로 답사한 거리는 9만여km에 달한다.

일거량득

해양연구소는 사람들에게 해양예보만을 알려준것이 아니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큰 리득도 주었다.

조선서해의 중요한 해양현상들인 바다물온도, 소금기, 떠살이생물량의 현실태와 앞으로의 변화는 물론 농업생산에 큰 피해를 주는 가물, 큰물 그리고 해일과 같은 재해성해양기후현상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수산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남모르는 기여를 하였다.

뿐만아니라 연구사들은 조선서해의 해양학적 리론을 우리 식으로 정립하고 심도있게 연구종합체계화하였다. 조석현상이 심한 조선서해에서 해양동력학적현상을 지배하는 리론적기초연구를 심화시켰으며 정확한 파도모형을 연구완성하여 1990년대 국가설계기준으로 등록하였다.

관측원들과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노력으로 얻은 귀중한 해양관측자료들은 300여권의 각종 자료집과 콤퓨터자료기지로 되였다.

그들이 해결한 세계 해양학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연구문제들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국제과학토론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분석실에서

현장에 위치를 정하다

조국인민들이 자랑하는 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과 대계도간석지에도 그들의 땀배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들은 대규모바다구조물건설이 바다환경에서 진행되는것만큼 건설현장에 해상기상예보대를 전개하고 활동을 진행하였다.

연구사들의 신속한 해양조사속에 건설자들은 8km의 날바다우에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서해갑문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그들은 대계도간석지건설현장에서도 우리 식의 바다외력결정방법을 창조하여 대계도간석지설계에 도입하였다. 그 나날에 그들이 연구한 《간석지건설해양자료계산방법》 등은 국가설계기준으로 등록되였으며 거기에 기초하여 설계가들이 완성한 대계도간석지설계는 **김일성**상을 받게 되였다.

연구소에서는 지난 기간 많은 공훈예측원, 공훈과학자, 로력영웅들이 배출되였다.

연구소소장 공훈과학자 박기석(75살)은 《사람들이 흔히 땀을 땅에 묻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푸르른 바다에 묻었다. 흐르는 물은 모든것을 씻어버린다지만 우리가 묻은 땀의 자욱, 량심의 자욱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관측선을 타고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　평

118-28 William Carson, On Toronto, Canada 한춘희 삼촌어머니 앞

다시 만날 그날을 그려봅니다

보고싶은 삼촌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맏조카 최중화가 멀리 이국땅에 계시는 삼촌어머니께 인사를 드립니다.

삼촌어머니가 조국에 오셨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해가 지나갔습니다.

조국에 오셨던 삼촌어머니와 상봉하던 일이 어제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간 집에서는 다 무고합니까. 가족들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잘 있으리라 믿습니다.

때없이 삼촌이 쓴 《태권도백과사전》을 펼쳐보느라면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겨레의 통일과 단합을 위한 길에 한생을 다 바친 삼촌의 모습과 그 나날에 삼촌과 삼촌어머니가 받아안은 절세위인들의 사랑이 가슴을 울립니다.

나에게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아시는 삼촌내외가 있다는 긍지와 삼촌과 삼촌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온 가족과 함께 사진첩을 한장두장 펼쳐갑니다.

삼촌과 함께 고향앞바다의 모래불을 거닐며 삼촌의 어린시절을 추억하던 일이며 고향사람들이 차려준 성의있는 음식상을 놓고 《아리랑》노래선률에 맞추어 따뜻한 정을 나누던 모습을 평생 잊을수 없습니다.

조국에서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하여 헌신한 삼촌을 애국렬사로 내세워주고 애국렬사릉에 안치하여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품속에서 우리 형제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되였습니다.

집사람도 잘 있고 맏아들 진혁이와 둘째아들 진우는 중앙기관에서 그리고 딸 은순이는 소학교교원으로 모두 맡은 일을 잘하고있습니다. 사위 명철이는 인민경제대학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손자들도 이제는 퍽 커서 다들 유치원과 초급중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삼촌어머니, 생전에 할머니는 한시도 삼촌을 잊어본적이 없었습니다. 림종을 앞둔 시각에도 혈육들모두가 모여살 그날을 그리며 몇번이나 삼촌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예로부터 나눌수도 바꿀수도 없는것이 부모이고 피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 가있어도 피줄은 어쩔수 없는것이기에 삼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의 생을 아낌없이 바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고있습니다. 조국인민들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습니다.

기회가 마련되면 자주 오시여 조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은 아마 삼촌어머니에게 큰 힘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촌어머니, 재삼 당부하지만 부디 몸 건강하여 래년에 조국에서 진행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때 다시 만납시다.

상봉의 그날을 그려보며 오늘은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12인민반
조카 최중화

눈물과 땀방울

주체101(2012)년 8월 평양측량지질설계연구소 기사장 리근우의 가정은 평천구역 북성1동에 새로 일떠선 34층짜리 살림집 21층 3호로 이사를 왔다. 근 180㎡나 되는 집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근우의 시야로는 문득 유년시절을 보낸 일본 오사까앞바다의 차디찬 물결이 비껴들었다.

총련사업으로 바쁜 아버지와 남의 집 탄재를 버려주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한 어머니, 학비마련으로 닥치는대로 잡일을 해야 했던 형과 누이…

리근우

온 가족이 그리도 한시바삐 가고싶어하였던 조국, 그 조국을 향해 주체49(1960)년 봄 근우네 가정은 귀국선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철부지나이였던 근우는 조국에 대하여 그때에는 다 알수 없었다.

해마다 나라에서 주는 새 교복을 입고 장학금까지 받으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형과 누이의 모습을 보며 근우는 늘 부러움에 휩싸여있었다.

《나라의 혜택이 고맙다고 눈물만 흘려서는 안된다. 명심해라. 너희들이 흘린 고마움의 눈물은 보답의 땀방울로 이어져야 한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근우는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중학교(당시) 전과정을 최우등의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남먼저 조국보위초소에 설 결심을 하고 군사복무의 길에 나섰다.

그는 군사복무후 김책공업대학 지질학부(당시)에 입학하였다. 장학금을 받아안던 그날 그는 일기장을 뜨거운 눈물로 적시였다. …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에서 맡은 과제는 대동강맥주공장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하수를 찾는것이였다. 사람들이 무더운 여름철 즐겨마시는 시원한 대동강맥주, 물은 맥주의 질을 규정하는 4대요소의 하나였던것이다.

그는 지질구성상태를 구체적으로 관찰한데 기초하여 현대적인 탐사수단을 동원하여 수소이온농도, 광물질원소포함량 등의 지표들을 만족시킬수 있는 지하수를 끝끝내 찾아냈다.

현실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그들의 고무에서 그는 무한한 행복과 긍지를 느끼였다.

이렇게 조국의 대지에 후더운 땀방울을 묻은 그는 지열자원을 찾아내여 리용하는것을 자기의 연구과제로 삼았다.

지열난방체계를 세우는데서는 지열보장을 위한 지하수의 량을 정확히 확정하는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지열원천지인 물원천을 어디에 정하는가에 따라 난방을 하려는 대상의 온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가 좌우되는것이기때문이였다.

휴식일에 가족과 함께

근우는 대상건설이 진행될때마다 지하수원천에 대한 조사, 지층의 온도특성, 함수층두께를 비롯한 기술적지표들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물원천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그 과정에 품질공학적 방법에 의한 지하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그것을 최적화, 최량화하는 방법론을 완성하여 많은 공공건물들의 지열보장을 과학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하였다.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 평양남새과학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를 보장하는데 공헌하였으며 평양을 웅장화려한 수도로 꾸리는데서 제기되는 측량설계와 지질상태평가 등 많은 대상과제들도 원만히 수행하였다.

아들 리준과 딸 리설은 체신부문에서 연구사로 일하고있다.

그 나날 전국과학기술축전, 전국발명 및 창의고안현상모집, 전국가설 및 착상발표회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으며 선군시대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에 참가하였다.

《사람들은 감격에 북받치면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도 눈물은 인간의 감정의 절정인가싶습니다. 나는 이때껏 살아오면서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의 감격에만 그치고 아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번역원으로 일하는 안해와 체신성에서 일하고있는 아들과 딸에게도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조국,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위해 더 많은 보답의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고 말입니다.》라고 기사장 리근우는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청춘기를 맞이한 고장

정주청년체육관에서의 롱구훈련

평양-신의주행급행렬차에 오른 우리는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와 공장, 농장벌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요즘은 정말 한해가 다르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모되여가니 말이요.》

우리앞에 마주앉은 중년나이의 손님이 차창에 눈길을 둔채 누구에게라없이 하는 소리였다. 알고보니 그는 정주철도전문학교 교원이였는데 우리가 자기소개를 하고 목적지를 말하자 몹시 반가와하였다.

《해방(1945년 8월 15일)직후까지만 하여도 우리 정주시에는 정주기관구밖에는 이렇다할 공업시설이 없었습니다. 사실 정주기관구도 해방전 일제가 정주벌에서 나는 기름진 쌀을 략탈해가기 위해 만들어놓은것이였습니다. 나라가 갓 해방되였을 당시 기관사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통털어 두명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명이 바로 정주기관구 사람이였습니다. …》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 렬차는 어느덧 정주청년역에 도착하였다.

역홈을 나서니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따라 정주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도로량컨으로는 정주청년체육관과 정주시학생소년회관, 국수집과 정주시인민병원, 정주은하피복공장과 정주제련소, 살림집들이 자기의 각이한 모양으로 서있었다.

정주청년체육관앞에서 우리는 역전에도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체육관도 같은 이름을 붙인것이 흥미있어 걸음을 멈추었다. 의혹을 풀길 없어 지나가는 한 로인에게 사연을 물어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있던 로인의 주름잡힌 눈가에 미소가 어리였다.

《그러니 기자선생들이였구만. 정주, 정주하면야 우선 왕밤이 첫째가는 특산이지요. 먼저 우리 집에 들려서 왕밤맛이나 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가시우.》라고 하며 그는 우리의 팔을 잡아끌었다. 우리는 로인의 진정에 못이겨 그의 집으로 향하였다.

그는 정주시 상단동 3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차인규(72살)로인이였다.

《아까 기자선생들이 역전과 체육관에 어째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고 물었지요. 그 사연을 다 말하자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는데…》라며 시작된 로인의 이야기는 정주시에 대한 구체적인 래력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원래 정주시는 고려시기 구주에 속해있다가 조선봉건왕조 초기부터 정주라고 불렀으며 1895년에 정주군으로 되였다. 또한 정주시는 운전, 곽산, 태천, 구성과 경계하고있으며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도로도 정주를 통과하는것으로 하여 평북지방의 삼가지대에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해방전 정주시는 농업일면에만 치우친 락후한 농업지대였었다.

《그러던 우리 정주가 변혁의 날을 맞이한것은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10월부터였지요. 우리 시를 찾아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정주시가 나아갈 방향과 시민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그때로부터 수십차례나 시를 찾으시였으며 그 나날에 백리물길제방도, 농기구공장과 학교, 병원 등 많은것이 생겨났수다. 어디 그뿐인줄 아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정주시건설을 통이크게 벌리도록 하시였소. 정주체육관이 건설되였을 때에도 수많은 체육기재들을 보내주시고 친히 체육관을 정주청년체육관으로 부르도록 하셨지. 우리 정주시가 그동안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생각 좀 해보소. 그러니 청년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짐작이 갑니까. 정주가 청춘기를 맞이했지요.》

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그 옛날 소작농들의 가난서린 한숨소리만 들려오던 고장이 이제는 살기 좋은 락원, 청춘기에 들어선 고장으로 되였다고 생각하니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왔던것이다.

생각에 잠긴 우리를 보며 그는 해방전 살길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고향을 돌아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는것, 고향을 보고싶어 해마다 정주시를 찾는다고 하였다.

정주시인민병원

가금생물약품연구소

차인규로인의 집을 나선 우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사무국장 최세진동포와 미국에서 살고있는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부회장인 김려식동포등 정주시에 고향을 둔 동포들에게 빨리 고향소식을 전하고싶어 정주청년체육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정주시의 그 어디를 가보나,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고향에 대한 자랑과 더욱 변모될 정주땅의 래일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자기가 사는 고향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꾸려나가려는 결의를 들으며 정주시에 대한 취재수첩을 덮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2)

- 백두산지구 -

이번호에서도 전호에 이어 우리 나라의 관광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두산지구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백두산지구는 조선북부의 내륙지대로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량강도일대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 명소들을 포괄하고있는 관광지구로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을 벌리신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이 보존되여있는 력사적인 곳입니다.

이곳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습니다. 백두산지구는 대부분 태고연한 울창한 천연밀림지대로서 백두산과 천지, 리명수폭포를 비롯한 장쾌하고 아름다운 자연명소들이 적지 않으며 희귀한 동식물들도 많습니다.

먼저 백두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백두산은 해발높이 2 750m로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 불리워온 백두산은 사시장철 흰눈을 이고 구름우에 솟아있다고 하여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백두산정에는 천지가 있는데 예로부터 그 존재가 성스럽다고 하여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주변에는 해발 2 500m이상의 높이를 가진 봉우리들이 20여개나 됩니다.

천지의 면적은 9. 16㎢, 둘레는 14. 4㎞, 최대깊이는 384m이며 물량은 초당 1㎥능력의 양수기로 60여년을 퍼올려야 하는 량입니다. 천지의 물원천은 이 지대에 내리는 강수와 눈석이물, 천지바닥에서 솟는 지하수입니다.

천지에는 천지산천어와 작은 부유생물들이 살고있으며 천지호반과 그 주변 백두산지구에는 백두산사슴, 노루, 늑대와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눈속에서도 피는 만병초와 들쭉나무 등 수백여종의 식물들이 자라고있습니다.

백두산기슭 소백수골의 대수림속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주체31(1942)년 2월 16일에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습니다.

고향집에는 그이께서 어린시절에 리용하시던 사적물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습니다. 고향집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군님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지으신 송시를 새긴 비가 있으며 뒤에는 정일봉이 거연히 솟아있습니다.

삼지연은 량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읍에서 북쪽으로 약 5㎞되는 곳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3개의 못이 나란히 있다 하여 삼지연이라고 합니다. 약 100만년전에는 이곳이 강이였으나 백두산화산이 분출하면서 용암에 의해 막혀 생긴 호수입니다. 기본물원천은 대기강수와 지하수이며 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곳이 없는 특이한 호수입니다.

물맑은 호수에는 잉어, 참붕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많으며 호안에는 백사장이 펼쳐져있습니다. 고산지대에서만 볼수 있는 자연풍경을 펼친 삼지연못가주변에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삼지연누렁이, 삼지연검은돈, 삼지연메닭이 보금자리를 펴고있습니다. 태고연한 수림속에 흰눈을 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출렁이는 삼지연의 풍경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호수가에는 독특한 형식의 휴양각들과 뽀트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화봉사시설들이 있습니다.

삼지연대기념비는 주체68(1979)년 5월에 제막되였습니다. 대기념비에는 항일무장투쟁시기 군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봉화탑(높이 50m)과 혁명사적비, 오른쪽에는 조각군상인 《진격의 나팔수》가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과 삼지연을 배경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 항일유격대원들의 모습을 형상한 《조국》편, 《흠모》편, 《진군》편, 《숙영》편, 《조국의 물》편을 각각 주제로 한 총 80여상의 조각군상들이 있습니다.

삼지연읍에는 백두관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이곳은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한눈에 볼수 있게 꾸려놓은 종합안내시설입니다. 장엄한 백두산의 기상을 담아 특색있게 건설된 백두관은 총서관, 백두밀영안내실, 천지안내실, 삼지연안내실, 리명수안내실, 무봉-대홍단안내실로 이루어졌으며 부지면적은 2 160㎡입니다.

삼지연읍에는 또한 삼지연학생소년궁전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삼지연군안의 학생들을 위한 과외교육교양기지로서 주체63(1974)년에 개관되였으며 북부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꾸려진 궁전은 주체95(2006)년 3월에 개건되였습니다. 궁전에는 예술, 체육, 과학활동소조실들과 극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7 700여㎡이며 수용능력은 600여명입니다.

리명수폭포는 백두산천지물이 지하수로 흘러나와 이루어진 폭포로서 압록강지류인 리명수기슭에 있습니다. 벼랑중턱에 뚫린 구멍에서 흘러나온 물이 벼랑의 경사면을 따라 쏟아져내리는 특이한 폭포입니다. 기본물줄기는 9개이며 이 줄기들사이에 구슬처럼 흘러내리는 무수한 작은 폭포들

천지에서

이 있습니다. 폭포는 주변의 나무숲과 잘 어울려 사시장철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보입니다. 리명수폭포의 경치에서 절정을 이루는것은 설경입니다. 폭포아래의 둘쑹날쑹한 얼음기둥들이 신비경을 펼치고 폭포두리에 서리는 안개는 그대로 서리꽃을 활짝 피워 서리꽃숲을 만듭니다. 폭포절벽우에는 정각이 있습니다.

대홍단혁명전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를 반대하는 대홍단전투를 조직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곳입니다. 대홍단전투(1939년 5월)는 당시 국내에서 진행된 일제를 반대하는 전투들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싸움이였습니다. 대홍단벌은 두만강상류와 소홍단사이에 있는 무연한 벌판인데 봄이면 진달래꽃이 활짝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타서 그 이름을 대홍단이라고 합니다.

삼지연대기념비의 《진군》편

리명수폭포

백두산지구에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도 있습니다.

혜산시의 중심인 패궁정언덕우에 있습니다. 높이가 38. 7m, 열면길이 30. 3m인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6(1937)년 6월 4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끄시고 조국땅 보천보에 나오시여 조국해방의 서광을 알리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를 기념하여 주체56(1967)년 6월에 세운 탑입니다. 기념탑은 중심에 군복을 입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모시고 그뒤로 붉은 기폭을 휘날리며 행군하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대오를 형상하였습니다.

패궁정은 혜산시 중심에 있는것으로서 1421년에 세운 혜산진성의 남문루입니다. 활을 걸어놓은 집이라는 뜻에서 패궁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보존되여있는 건물은 1631년에 고쳐지은것입니다. 북방방위에서 큰 역할을 한 력사유적입니다.

베개봉호텔은 량강도 삼지연군 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로서 방수는 모두 130개입니다.

참으로 백두산지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활동사적이 집중되여있는 뜻깊은 곳입니다.

그럼 다음호를 기다려주십시오.

글　본사기자 정　린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겨레의 통일지향과 의지를 보여준 계기

백두산정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 출정식이 진행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행진단성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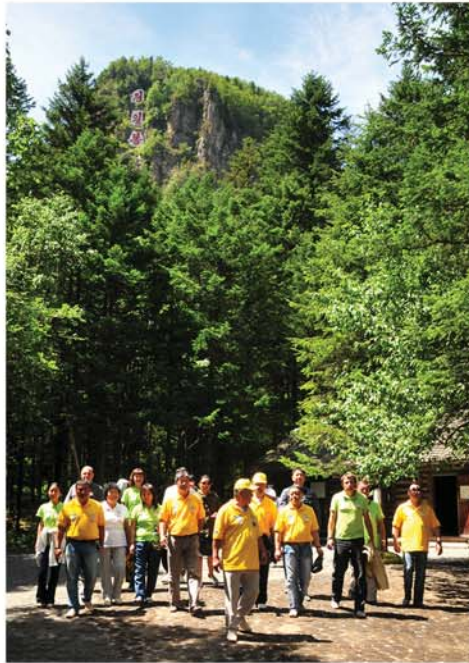
조선인들의 로씨야에로의 이주 150돐을 계기로 지난 8월 조국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이 진행되였다.

행진에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칠성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차행진단이 참가하였다.

출정식이 백두산정에서 진행되였다.

출정식참가자들은 민족의 넋이 뿌리내리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항일혈전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출정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조선과 로씨야 두 나라 정부의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되는 이번 행진이 날로 발전하고있는 조로친선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안고 조종의 산 백두산을 출발한 행진단성원들은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시여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본 그들은 백두산밀영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금강산에서의 등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참관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보면서 그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민족재생의 봄을 안아오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행진단은 조국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혜산시와 함흥시를 거쳐 항구문화도시 원산시도 돌아보았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찾은 그들은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갖추어져있는 현대적인 야영각들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운동장, 수족관, 조류사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 야영생들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보며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겨레의 간절한 통일열망을 안고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출정하여 혜산, 함흥, 원산 등 조국땅 각지를 통과한 행진단이 평양에 도착하자 평양시민들은 백두에서 뻗어내린 하나의 지맥, 하나의 혈맥을 따라 민족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행진을 이어가는 동포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해방탑을 찾았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하였다.

백두에서 한나까지 조국땅 방방곡곡에 조국통일의 환호성이 높이 울려퍼질 통일의 날을 그리며 행진단성원들은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여 력사의 집에 깃들어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문수물놀이장, 평양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개성에서는 각계층 군중이 꽃다발과 공화국기, 통일기를 흔들고 《조국통일!》구호가 울려퍼지는 속에 자동차행진단 환송행사가 진행되였다.

행사에서 연설자들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절절한 념원을 안고 공화국의 여러 지역을 통과하면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판문점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존함을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는 친필비와 정전담판회의장, 정전협정조인장, 판문각을 돌아본 자동차행진단 성원들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 겨레의 의지를 안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행진단단장 김칠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행진단성원들은 백두산에서부터 근 1 500㎞의 구간을 달리면서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고국의 여러곳을 참관하였으며 아름다움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나> 자동차행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시고 우리에게 민족의 통일위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도록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도 올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할 일념에 차넘쳐있습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만경대고향집을 돌아보았다.

평양에 도착한 행진단성원들은 수도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판문점에 세워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친필비앞에서

개성시에 있는 고려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조국의 앞날은 창창하다

생활의 흐름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고유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나에게도 역시 하나의 굳어진 생활습관이 있다. 그것은 텔레비존에서 조국소식이 방영되면 하던 일도 제쳐놓고 시청하는것이다.

얼마전에는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이 방영되였는데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심에 넘쳐있었다. 만경대고향집과 진정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대원수님의 한평생을 돌이켜보았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일제의 쇠사슬에 칭칭 묶이웠던 조선을 구원하고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만경대고향집을 떠나시였다. 항일의 20성상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시며 총대로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새 세상을 펼쳐주신 대원수님이시다.

지나온 력사는 수령이 위대하여야 나라가 위대하고 인민이 위대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여러 나라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인민들이 죽고 귀중한 재부들이 파괴되며 나라가 망하는 현실이 펼쳐지고있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나날이 국력이 강해지고있다.

미국이 온갖 생억지와 전쟁, 제재책동을 일삼아도 우리 조국이 그처럼 굳건하고 발전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그리고 인민들이 대원수님들을 따랐듯이 원수님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우리 조국의 앞날은 창창하다.

중국 대련시 윤영화

꿈이 많은 고국

나는 고국에 두번째로 왔다.

2006년에 처음으로 와보고 이렇게 여러해만에 고국을 또다시 찾아왔다.

그사이 고국은 참으로 몰라보게 변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의 건축물이다.

궁전의 내부와 외부는 돌아볼수록 고국의 인민들이 수령에 대한 경모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게 하였다.

우리가 오고가는 평양의 거리들은 새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웅장하면서도 훌륭한 건축물들과 살림집들이 수없이 솟아있었다. 거리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희망과 기쁨이 한껏 어려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민족적이면서도 현대적이고 단정하였다.

우리가 어느 한 식당에 가보니 그곳은 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였으며 그들은 자기의 입에 맞는 민족음식을 즐겨먹고 있었다.

고국의 어느곳에서나 약동하는 숨결, 삶의 희열을 느낄수 있었다.

나는 고국은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고있으며 그 꿈의 실현을 위하여 시간을 주름잡아 달리고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인민들의 지향은 높았다.

그들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할 야심만만한 의지에 넘쳐있었다.

그들의 경제적, 기술적잠재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이 발휘될것이다.

로씨야 싸할린주 하옥자

한 모습

리기옥

지난 7월 어느날 평양의 대동강반에서였다. 시원한 강바람을 쏘이며 산보를 하던 중국 료녕성 심양시에서 온 리기옥동포는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눈길을 멈추었다. 강반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의 눈에 무척 정겹게 안겨들었던것이였다.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에게는 지나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다. 학생들속에 묻혀 옛이야기를 들려주던 일이며 앓는 학생의 집을 찾아가 미진된 공부를 배워주던 일…

그는 10여년전까지만 하여도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자였다. 어느 사이 그의 생각은 추억의 물결속에 젖어들었다.

그는 19살 처녀시절에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있는 조선족사범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심양시의 서탑조선족소학교 교단에 섰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3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였다. 하물며 성격과 취미가 서로 다른 어린 학생들을 수십명이나 맡아 교육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산수, 조선어, 음악, 체육, 미술을 비롯한 여러 과목의 기초지식을 알심있게 가르치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였다. 산수과목만 놓고보아도 구구표를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암송시킨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를 위해 밤을 새우며 직관물을 만들었고 길을 걸으면서도 참신한 교수방법을 모색하였다.

한편 그는 혼자서 다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소학교교원으로서 다방면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다. 어릴적부터 수학에 취미를 두었던 그는 성악, 무용 등 예능분야에서의 자기의 부족점을 퇴치하기 위해 때로는 텔레비존에서 나오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노래련습을 해보기도 하였고 밤깊도록 거울앞에서 춤가락을 익히기도 하였다.

그는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키를 자래우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가끔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어릴적에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시 《사과배》를 읊어주군 하였다. 그 내용인즉 돌배와 사과를 접하여 얻어진 사과배는 사람들에게 사과맛도 주고 배맛도 주지만 사람은 사과배가 되여서는 안된다는것이였다. 결국 학생들이 비록 이역에서 나서 자라지만 조선민족으로서의 순결성을 흐리지 않게 하려는것이 그가 지닌 마음이였다.

그는 체육경기를 하나 조직하여도 고국의 명산들의 이름을 붙여 조를 구성하였고 춤을 하나 배워주어도 노래 《대동강》과 같은 고국의 노래들로 동작을 펼치군 하였다. 그러한 그여서 그런지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지금도 그는 《쏠미화쏠 도미화쏠…》이라고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악보를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세월은 흘러 학생들이 바뀌고 그의 직무도 달라졌지만 교육자로서의 그의 모습은 언제 한번 흐린적이 없었다. 부교장사업을 맡은후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 등 해야 할 사업이 많은 속에서도 학교학생들을 하나같이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다.

그 나날 그는 늘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였다. 학생들앞에 나서기 전에는 그 거울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스스로 교육자로서의 마음을 가다듬군 하였다.

그의 모습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가정에서나 동리에서나 새세대동포들이 자기 민족을 잘 알고 애국애족의 길에 적극 나서도록 그들의 거울이 되여 살고있다.

지난 고국방문기간에는 자식들에게 들려줄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넣었다.

본사기자 홍정혁

수 기

행복의 메아리를 안고 살리

해마다 오지만 올 때마다 나에게는 고국의 모습이 새롭게 안겨온다.

1년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진 고국, 창조와 로동의 기쁨을 안고 거리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볼수록 정다웁다.

생각해보면 행복은 상대적인 개념인것 같다. 향락에 젖어 창조와 로동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다운 행복이라고 말할수 없다.

이번에 고국에서 보낸 나날은 길지 않았어도 나는 행복이란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였다.

우즈베끼스딴에서 살고있는 나는 지금 모란봉예술단 무용배우로 활동하고있다. 어린시절부터 춤추는것을 특별히 좋아한 나는 11살때부터 조선무용을 열심히 배웠다. 무용배우로 된 이후로는 해마다 고국에 온다.

벌써 몇해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빠짐없이 참가하고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무대에 올린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형상할 때처럼 무용수들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열정이 최대한 폭발된적은 없었다.

이 무용작품은 마식령스키장에서 마음껏 스키를 타며 삶의 희열에 넘쳐있는 고국인민들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기발하면서도 생동한 춤동작으로 보여주고있다.

《마식령아! - 》 하는 힘찬 부름소리가 메아리치고 무대배경에는 마식령스키장의 장쾌한 정경이 펼쳐진다. 경쾌한 음악선률을 타고 스키주로를 신나게 지쳐내리는듯 한 무용수들의 생기발랄하고 기백있는 춤동작이 4분 30초동안 펼쳐진다.

공연성과를 축하하는 관중의 아낌없는 박수는 나에게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고국에서 지새운 낮과 밤들이 떠오르게 한다.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에 대한 창조는 시간적으로도 긴장하였지만 일반적인 무용작품과는 달리 특수한 기재와 장치를 써야 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어려웠다.

이번에 작품에 출연한 무용수 6명가운데서 3명이 10대의 나어린 처녀들로서 무대경험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젊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고국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한 이 무용작품대본을 보고 흥분을 금치 못하며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였다.

처음 우리는 스키를 형상한 무용도구에 익숙되지 못하여 다리를 상하기도 하였다. 나도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으며 훈련하였고 나이가 제일 어린 최향미와 유지연이도 나처럼 다리에 붕대를 싸매고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 무용작품을 지도한 국립민족예술단의 안무가 김한무선생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지구에 훌륭한 스키장을 세워주신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군 하였다.

작품의 종자와 내용이 안겨올수록 우리는 새힘이 솟구치고 춤률동은 더욱더 생동하게 세련되여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마식령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이며 그 노래, 그 웃음소리는 앞으로도 마식령의 메아리가 되여 온 세상에 울려퍼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마식령산발들을 뒤흔들며 메아리치는 모습을 담은 무용작품은 이렇게 완성되였다.

이번에 우리는 고국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릉라곱등어관과 문수물놀이장 등을 찾아 그곳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는 고국인민들과 함께 즐거움을 맛보았다.

다음번에는 고국에 와서 꼭 마식령스키장에 가보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 나의 고국강산에 울리는 행복의 메아리를 이 가슴에 안고 조선민족의 한성원이라는 긍지에 넘쳐 살겠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배우 태애순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3)

\- 만조선 -

만조선은 고조선의 마지막시기에 해당되는 고대국가로서 B. C. 194년부터 B. C. 108년까지 근 90년간 존재하였다.

만조선의 통치제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선행시기 특히 후조선시기의 통치체계와 질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더욱 정비보강하였다는데 있다.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만조선의 통치계급은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에 흔히 있게 되는 혼란상태를 극복하고 전국에 대한 지배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 저들의 통치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만조선의 중앙관료체계는 그 이전시기와 별로 차이가 없지만 그것은 상당히 째인것이였다.

이 시기 비왕, 상, 대부, 장군, 박사와 같은 중앙관료들의 권한과 임무는 보충되였으며 대신급의 관직밑에 여러 등급의 관리들로 이루어진 관료집단들도 비교적 정연하게 꾸려져있었다.

국왕을 비롯한 만조선의 통치계급은 이러한 중앙관료기구에 의거하여 저들의 지배적지위를 강화하였으며 낡은 노예주귀족들뿐아니라 새로 자라나고있던 신흥봉건세력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가통치질서를 완비해나갔다.

만조선은 국왕의 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지방통치체계를 정비보강하였으며 주변의 군소지방세력들도 복종시켜나갔다.

국왕은 자기의 직할지를 여러 고을로 나누고 해당 지역과 깊은 인연을 가진 중앙의 상들에게 분담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이것은 이전과는 달리 직할지가 크게 확장된데로부터 전국에 대한 국왕의 통치를 원활하게 실현할 목적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그런데 직할지를 분담관할시키는 이러한 제도는 한동안 국왕의 지배권을 보장하였지만 그것은 점차 해당 지역에서 대신들을 비롯한 지방귀족세력들을 강화하여 국왕의 권력에 대립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만조선의 통치계급은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후국들을 세우고 부수도제도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피착취대중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군대제도 등도 전반적으로 더욱 보충완비하였다.

그러나 만조선은 통치계급내부의 분렬과 대립, 권력과 재부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귀족세력들간의 쟁탈전으로 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였으며 나아가서 외세와의 전쟁으로 하여 멸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여 우리 민족의 첫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은 만왕조의 멸망과 함께 근 3 000년에 달하는 자기의 력사를 끝마치게 되였다.

이와 같이 만조선의 통치제도는 전조선(단군조선)과 후조선의 통치체계와 질서를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킨것으로서 그후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고있던 봉건세력들의 통치제도의 수립과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상 식

어떤 사람들이 게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게는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것은 아니다.

알레르기성체질인 사람이 게를 먹으면 히스타민이 많아져 위경련을 일으켜 메스꺼움, 게우기, 배아픔, 설사 등을 하며 때로 두드러기가 나오고 천식발작까지 한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100g의 게살속에 콜레스테롤이 235mg, 100g의 게장속에는 460mg이나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관상동맥질병, 동맥경화증, 고혈압환자들은 게를 적게 먹거나 먹지 않는것이 좋다.

그리고 위병, 감기, 천식, 설사증때에도 먹으면 나쁘다.

* * *

박에 담는 생각

떠나온 고국땅을 그리는 동포들의 마음은 해가 흐를수록 더해만갑니다.

얼마전 우리가 고국을 방문한 로씨야 연해변강 빠르찌잔스크시 조선민족문화자치회 회장 마가이 아나똘리와 함께 만경대고향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만경대고향집의 우물가에서 조롱박으로 물을 마시는 해외동포들

고향집을 돌아보고 우물가에 이른 마가이동포는 곁에 주런이 놓여있는 자그마한 바가지들가운데서 한개를 들고 물을 떠마시고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만강을 건너 로씨야로 살길찾아 떠나면서 행장속에 박씨만은 넣고 떠났다고 합니다. 타향에서 태여난 나는 해마다 봄내 여름내 박씨를 심고 가꾸면서 가을이면 잘 여문 박으로 정성스레 바가지를 만들어 정히 사용하군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릴적부터 보며 자랐습니다.》

마가이동포는 어머니처럼 자기도 봄이 오면 안해와 함께 박씨를 심어 그 열매를 생활에 리용하였으며 이사를 갈 때면 박씨를 가지고가는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지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박에 어울려 풍겨나는 민족의 향취를 감미롭게 느껴안느라니 우리는 독자들을 위해 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지면에 펼쳐놓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성에서 박의 생산과 판매를 맡아보고있는 리덕룡부원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였습니다.

일명 바가지박사로 불리우는 그는 인심좋은 얼굴에 박꽃같이 환한 웃음을 띠우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럼 리덕룡의 구수한 바가지이야기를 아래에 적어 내려가보겠습니다.

《바가지는 박을 두쪽으로 쪼개서 만든 여러가지 목적에 쓰이는 그릇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바가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있는데 구전소설 《흥부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을것입니다.

바가지는 박과에 속하는 넌출성열매남새작물에서 얻어집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2 000년전부터 박을 재배해왔는데 그 종류는 단박, 쓴박, 조롱박으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단박은 식용으로, 쓴박은 약재로, 조롱박은 장식용으로 주로 쓰이였는데 세가지종류의 박은 모두 바가지로 리용할수 있습니다.

박은 25~30℃에서 싹이 잘 트며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은 기후와 흙층이 깊고 부식질이 많은 땅에서 잘 자랍니다. 4월말-5월초에 직파하거나 이른봄에 온상에서 모를 길러 바깥온도가 15℃이상되는 시기에 밭에 옮겨심습니다.

박이 여물면 첫서리가 내리기 전에 따야 합니다. 단박이나 쓴박은 줄톱으로 절반 켜서 씨를 먼저 파내고 통채로 찝니다. 그다음 속을 긁어내여 해볕에 말리워 그릇(바가지)으로 씁니다. 찌거나 해볕에 말리워 리용하는것은 조롱박역시 같습니다. 씨는 약으로 쓰입니다.

바가지는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였습니다.

조롱박은 꼭지쪽의 얼마간을 잘라내고 안속을 파내여 지금의 병과 같이 사용하였는데 물 또는 액체로 된 약재와 종자같은것을 담는데 아주 제격이였습니다.

바가지는 주로 쌀이나 물, 국, 장을 푸는데 리용하였는데 여기에 밥을 담으면 한여름철에도 쉬지 않으며 겨울에는 인차 식지 않습니다.

하기에 예로부터 매 가정들에서 딸을 시집보낼 때 크고작은 바가지를 여러개씩 갖추어보냈습니다.

녀인들이 물을 담은 함지나 놋그릇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민속무용 《돈돌라리》를 추었듯이 바가지는 악기를 대신하기도 하였고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리용하였습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부터 수지나 철재등으로 만든 바가지나 그 대용품들이 널리 쓰이기때문에 오늘 박으로 만든 바가지는 농촌가정들에서나 찾아볼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 사람들속에서 바가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연환경에서 얻어진 순수한 제품인 박이 환경오염이 전혀 없으며 위생적이면서도 살균력이 높기때문입니다.

건강에 관심을 돌리는 분들에게는 그저그만이기에 조국인민들은 물론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길이 조선의 박에 모아지는가 봅니다.》

바가지박사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농촌마을들에 한폭의 그림같이 아름답게 펼쳐진 박풍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박속에 깃든 민족의 슬기와 지혜, 깐지고 알뜰한 생활풍습 등에 대하여서도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럼 동포여러분도 건강에 매우 좋은 박제품들을 생활에 널리 리용하여 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농가집성》

《농가집성》은 우리 나라의 옛 농업서적이다.

이 책은 신속(1600년-1661년)이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에서 출판된 책들을 한데 묶어서 1655년에 한책으로 편찬출판한 책이다. 책은 1656년과 1734년에 다시 출판되였다.

편찬자는 당시 봉건정부의 권농정책의 요구에 맞게 농업을 장려하며 기근을 구제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 책에 실려있는 《농사직설》은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농업서적의 하나로서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영농방법과 영농경험을 일반화하며 당시 농업이 비교적 발전한 경상도 등지의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농업이 비교적 뒤떨어진 함경도, 평안도 등지에 보급할 목적으로 정초 등이 세종의 지시를 받아 1429년에 편찬한것이다. 《농사직설》에는 씨앗의 준비 및 처리방법, 발갈이하는 방법, 콩, 벼, 기장, 조, 피, 록두, 밀, 보리, 참깨, 메밀, 목화 등을 재배하는 방법들이 실려있다.

이 책에 실려있는 《금양잡록》은 강희맹이 15세기 중엽 경기도 금천(서흥군)지방을 중심으로 한 지방들에서 적용되던 영농방법과 영농경험, 농민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편찬한 농업서적이다. 《금양잡록》은 농가, 농담, 농자대, 제풍변, 종곡 등 5편과 《농부가》의 가사인 《농구》 1편으로 되여있다. 이 책에는 당시에 재배되던 27종의 벼, 6종의 밀과 보리, 4종의 기장, 20종의 콩과 팥, 15종의 조, 6종의 피, 4종의 수수 모두 80여종의 작물품종과 그 생긴 모양, 특성, 씨뿌리기에 적합한 토지, 수확기일 등이 간단하게 씌여있다.

《농가집성》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와 구체적실정에 맞는 영농방법과 풍부한 농사경험을 싣고있으며 당시 농민들의 로동생활과 생활감정, 민간풍속과 생활세태 등을 반영한 《농부가》도 싣고있어 우리 나라 농업사와 농업서지연구와 함께 문학사사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농가집성》은 봉건정부의 권농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농업서적을 한데 묶어놓은것과 함께 중부조선이남지방의 영농방법과 농사경험이 주로 올라있음으로 하여 당시 우리 나라 농업발전상태의 전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등의 부족점을 가지고있다.

* * *

야 화

마 십 굴

황해북도 수안군 뒤산절벽에는 큰 석굴이 있다. 이곳 사람들은 그 석굴을 마십굴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 고장에 한 가난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정직하고 소박하여 남보기에 어수룩해보인다 해서 사람들은 《바보마십》이라고 별명을 지어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해는 이 고장에서 보기드문 미인인데다 례의범절 또한 뛰여난 녀자였다.

이들 부부는 구차한 살림속에서도 의가 좋기로 한쌍의 원앙새같았다. 남편은 안해를 극진히 사랑했고 안해는 남편을 지극히 존경했다.

그러던 어느해 겨울 마십은 여느날과 같이 나무하러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쓰러져있는 웬 사람을 보게 되였다. 죽은 사람인것 같아서 가슴에 손을 대보니 온기가 있었다. 마십은 부랴부랴 그를 둘쳐업고 집으로 와 성심성의로 간호하였다.

그는 이 고을원의 아들이였다. 사냥갔다 길을 잃고 쓰러졌다는것이였다.

원의 아들은 마십부부의 극진한 간호로 몸이 《회복》되였다.

그런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던 그는 어느날 마십이 없는 틈을 타서 마십의 안해를 유혹하려들었다.

《당신과 같이 꽃같은 녀인이 어찌 이런 곳에서 구차하게 일생을 보내겠소. 나를 따라가는것이 어떻소?》

《예로부터 유부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하였거늘 제가 어찌 다른 사나이를 섬길수 있겠나이까.》

《나를 따라가면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데 그것이 싫단 말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려거든 어서 댁으로 돌아가주기 바랍니다.》

무안을 당한 원의 아들은 꽁무니를 뺐다.

그로부터 며칠후 난데없이 장정 10여명이 와 마십을 바줄로 묶어놓은 다음 그의 안해를 업고 달아났다.

원의 아들이 산속에 누워있은것은 마십의 집에 기여들기 위해 우정 꾸민 흉계였던것이다.

마십은 원의 아들을 찾아가 안해를 돌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자 원의 아들은 뒤산절벽을 가리키며 《정녕 네 계집을 찾고싶거든 저 절벽에 굴을 50리만 뚫으라.》고 말하였다.

마십은 그날부터 정으로 바위를 쪼아 굴을 뚫기 시작하였다. 그런 백날이 되는 날 바위에는 큰 구멍이 뚫렸다. 마십이 구멍을 더 크게 하고 들어가보니 자연동굴이 나졌다. 마십이 불을 켜들고 굴속으로 계속 들어가니 석벽이 가로막혀있었다. 그는 도끼로 벽을 치다가 힘껏 밀었다. 석벽이 무너졌다. 앞이 훤해 보니 거기가 고을원의 집 후원이였다.

마침 마십은 이곳에 나와있는 안해와 마주쳤다. 안해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마십부부는 굴속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이것을 기미챈 원의 아들이 불량배들을 굴속으로 뒤쫓게 하였다. 바로 그 순간 굴이 와락 무너지면서 악당들을 돌속에 묻어버렸다.

원의 아들은 다른 불량배들을 시켜 마십을 뒤쫓게 하는 한편 자기는 굴앞을 지켜섰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마십부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이 꼭두까지 난 원의 아들은 굴에 불을 질렀다. 불과 연기가 굴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굴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시퍼런 물이 쏟아져나왔다.

불은 꺼지고 원의 아들과 불량배들은 모두 물귀신이 되였다고 한다.

그때부터 굴은 마십굴로 불리워지게 되였다.

*　　*　　*

유모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선생 : 너는 롱구는 잘하는데 시험성적은 왜 그렇게 좋지 못하니?

학생 : 롱구할 때는 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주지만 시험칠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 화

곽재우의 안해

1588년 여름 어느날이였다. 곽재우의 안해는 해가 중천에 떠오르도록 방안에 까딱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리씨(본 안해 조씨가 병을 만나 사망한 다음 맞은 안해)는 시집와서 겨우 사흘을 지내더니 나흘째부터 낮잠을 자기 시작하여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잤다. 아침밥상을 치우기 바쁘게 벌써 베개를 베고 방바닥에 쓰러져서는 점심때가 되여서야 겨우 눈을 뜨고 밥을 한그릇 다 먹고는 또 그 자리에 누워 코를 곯아대면서 자는데 때로는 점심도 건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처 자는 날도 없지 않았다.

곽재우는 본래 호걸스럽고 의협심이 강해 친구들이 많았으므로 젊었을 때부터 그들과 밀려다니며 글이나 짓고 술이나 마시는것으로 나날을 보내여왔다. 리씨를 새로 맞아들인 뒤에도 낮에는 별로 안방에 드나들지 않았기때문에 자기 안해가 그런 잠꾸러기라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날이 흘러감에 따라 정도에 지나친 안해의 낮잠을 보고 참을수 없었던 가족들이 비난을 하였고 이웃에서도 뒤소리를 하게 되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곽재우는 100일째되는 날에 이르러서는 더 참을수 없게 되였다. 당장 버릇을 떼주든가 아니면 제 집으로 보내든가 마련을 보아야겠다고 작정한 그는 가족들이 들에 일하러나가 집안이 조용해지자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니나다를가 안해는 낮잠을 자고있었다. 단잠에 들었는지 문소리를 내도 깨여나지 못하였다. 불끈거리는 가슴을 누르면서 그의 어깨를 여러번 흔들었다. 그제야 간신히 눈을 뜨고 자기를 깨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참 올려다보던 그는 남편임을 알고는 얼른 일어나 한옆으로 비켜앉았다.

《여보, 이런 법이 어디 있소?》

처음에 차근차근 말해보자던 곽재우의 생각은 어느새 달아나고 솟구치는 격분에 언성이 높아졌다.

《남편의 망신은 둘째치고 남의 집안을 어떻게 만들어놓자는 심보요?》

《…》

곽재우가 당장 요정을 낼듯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으나 안해는 흐트러진 머리쪽을 가다듬고 옷매무시만 바로잡았다.

자기 말에 끄떡하지 않는 안해를 보자 곽재우는 더욱 약이 올랐다.

《어서 대답을 하오. 나를 섬기고 집안을 받들려 시집을 왔소, 아니면 나를 속태워 죽이고 집안을 망쳐놓자고 왔소?》

《저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다고 이러세요?》

《여보, 주부가 집안을 거두지 않고 밭일도 하지 않으면서 낮잠만 자는게 큰 잘못이 아니란 말이요?》

《주부가 낮잠만 자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은 그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안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유지되는줄 아옵니다. 제비둥지가 깨지면 둥지안의 제비알이 어찌 성하겠나이까?》

《뭐라구?》

《지금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깨여질 형세인데도 아무런 걱정없이 글이나 짓고 술에 취해 나날을 보내고있는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잘못이라 여기지 않는데 어찌 제비알같은 집안 하나 망하게 된다고 꾸짖나이까?》

곽재우는 안해의 뜻밖의 대답에 놀라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의 말이 옳았다. 외적의 침입을 제압하고 방비하는것은 왕궁에서나 하는것으로만 여겨온 그였다.

안사람이 낮잠만 자면 집안이 망하는것은 생각했으나 바깥주인이 글에 옴해있고 술에 취해있으면 나라가 망하리라는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것이다.

말문이 막혀 물러나온 곽재우는 그 이튿날부터 술놀이를 딱 끊고 두레놀이, 매사냥 등으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며 무술을 익혀나갔다.

이때부터 곽재우의 안해도 낮잠을 자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밭일을 도말아 해제끼면서 남편의 싸움준비를 도와나섰다.

그후 몇해 안있어 왜적의 침입으로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곽재우는 의병장으로서 이름을 떨치였다.

*　　*　　*

처음으로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

조국에서 고구려시기 소금생산유적이 새로 발굴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온천군 원읍고급중학교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온천군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을 처음으로 조사발굴하였다.

지난 시기의 소금생산력사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연구집단은 원읍로동자구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정도 떨어진 나지막한 둔덕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시설인 유적과 유물들을 찾아냈다.

유적은 크게 두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하나가 돌과 벽돌로 축조된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에는 아궁시설과 연소실, 내굴길시설이 있다.

아궁시설에는 아궁구멍과 그 량옆에 두개의 재처리용구뎅이들이 있다.

돌로 네벽을 축조한 연소실의 바닥은 돌과 석회를 섞어 다진것이며 그밑에서 센 열을 받은 불그스레한 흙층이 발견되였다.

연소실의 뒤부분에는 연기가 빠지는 내굴길시설이 있는데 그 중간부분에 원형의 그릇을 올려놓을수 있게 내굴길벽을 깎아내여 만든 공간이 있다.

유적에는 또한 검은색의 재가 두텁게 깔린 웅뎅이시설이 있다. 웅뎅이는 바다물을 끌어들일수 있는 도랑과 련결되여있고 그 중심에 돌을 일정한 높이로 쌓아놓은 부분이 있다.

여러가지 종류의 질그릇, 벽돌, 쇠로 만든 평가마쪼각, 녹아붙은 쇠덩어리, 짐승뼈와 뿔 등 많은 유물들도 발견되였다.

새로 발굴된 유적은 고구려시기의 바다소금생산유적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

질그릇들과 벽돌들은 4세기 중엽에 해당한것으로 고증되였다.

유적주변 지층의 염도가 매우 높고 두터운 재층이 깔려있으며 바다물을 끌어들이는 도랑이 형성된것은 이 유적이 당시에 바다물로부터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이였다는것을 충분히 알수 있게 하여준다.

연구집단은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을 통하여 당시에 웅뎅이시설에서 식물의 재를 리용하여 바다물의 염도를 높이고 그것을 쇠가마에서 끓이는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처음으로 소금생산과 관련한 유적이 발굴되고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기술의 면모가 밝혀짐으로써 당시 민족문화의 높은 발전수준과 독자성이 더욱 뚜렷이 실증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강좌장 리영식은 지난 시기 소금생산력사를 밝힐수 있는 귀중한 유적을 발굴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연구를 더 심화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조선중앙통신

고구려사람들의 일본렬도에로의 진출

고구려사람들은 대체로 4세기부터 시작하여 5세기이후 대대적으로 일본렬도에로 진출하였다.

이 시기 고구려의 국력이 가장 강화되는 반면에 일본에는 아직 일본섬전체를 장악한 통일국가가 서지 못하고 수많은 호족세력(소국)들이 각지에서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리고있었다.

용감하고 진취적인 고구려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던 일본렬도에 건너가서 자기들의 독자적세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뒤떨어진 일본의 사회문화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이 일본렬도에로 건너간 항로는 서해항로와 백제나 신라의 땅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동해안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 일본렬도의 서부해안으로 가는 길이였다.

고구려사람들은 일본땅에 건너가서 큰 정치세력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것은 일본의 여러곳에서 나타난 4~7세기 고구려계통의 유적유물을 통하여 알수 있다.

대표적인것은 나가노현과 야마나시현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수많은 돌각담무덤을 들수 있다. 이것은 4세기 고구려의 돌각담무덤과 같은것으로서 나가노현에서 약 600기, 야마나시현에서 약 1 000기가 발견되였다. 또한 오사까부의 《고우찌 아스까》와 와까야마현 기노가와하류일대의 《이와세 센즈까》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 많이 널려있는 작은 돌칸흙무덤들이다. 그 무덤들에서는 그전시기에는 없었던 안장, 등자, 자갈, 말띠장식, 마면갑 등 발전된 마구와 고리자루긴칼, 패쪽갑옷, 금도금한 채양있는 투구 등 우수한 무기와 무덤의 껴묻거리들이 대량적으로 나왔다. 고구려무덤의 짜임새와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고구려의것과 공통성을 가진다는것을 볼 때 이 모든것은 고구려문화의 영향을 받은 무덤들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와 같이 4세기이후 5세기 후반기에 고구려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문화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았다.

고구려사람들의 일본진출은 그후에도 계속되였다.

595년에 고구려의 중 혜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성덕태자의 스승으로 되였는데 그는 성덕태자가 하나를 물어보면 열을 알았으며 열을 물어보면 백을 알았다고 한다.

5세기 중엽이후 일본의 여러곳에 자리잡은 고구려사람들의 세력 즉 소국들은 그 고장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 * *

애국적감정을 노래한 고조기

고조기(?-1157년)는 고려시기의 문인이다.

처음이름은 당유이다.

제주도에서 고유의 아들로 태여났다.

고조기는 성품이 청렴하고 강직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력사, 철학관계의 책을 많이 읽었고 시창작에서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고려 예종(통치년간 1106년-1122년) 초기에 과거에 급제하고 남주원으로 되였으며 그후 여러 관직을 거쳐 중서시랑평장사로 되였다. 정계생활과정에 그릇된 정사와 관료들의 옳지 못한 행위들에 대하여 바른 소리를 한것으로 하여 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고조기는 다방면적인 지식의 탐구와 함께 시창작에도 큰 관심을 돌리였다. 주로 농촌을 노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한 그는 무관벼슬자리에 있던 때에는 반침략애국주의주제의 시들도 썼다.

그의 작품들은 현재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고려사》, 《동문선》, 《동인시화》,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후세의 여러 문헌에 간단한 인물자료와 약간의 시편들이 수록되여있다. 그가 남긴 시가유산가운데서 《싸움터의 님에게》, 《운암진에서 쓰노라》등이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한자시로 된 《싸움터의 님에게》는 고려 전반기 진보적문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반침략애국주의주제의 작품들가운데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단실로 수놓아
변방멀리 싸움터에 보냅니다
귀중하신 몸 아끼시고
끼니나 많이 드시기 바라나이다

나라위해 공세움이
사내대장부가 할 일이니
원쑤베지 않고는
돌아오지 마옵소서

이처럼 먼 싸움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며 부른 안해의 노래형식으로 씌여진 이 시는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원쑤를 쳐없애고야 돌아오라는 간절한 부탁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가정의 안락보다도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애국적감정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그는 당시 5언시의 능수로 알려져있다.

*　　*　　*

조선의 특산

개성고려인삼

조국을 다녀간 많은 해외동포들은 조선의 특산인 개성고려인삼에 대하여 잘 알고있을것이다.

오갈피나무과의 여러해살이 약용식물인 개성고려인삼은 오래전부터 그 약효가 독특하여 세계적인 명약으로, 장수식품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처럼 생겼다는데서 지어진 이름인데 산에서 자라는것을 산삼이라 하며 재배하는것을 인삼이라 불러오고있다.

고려시기에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면서부터 고려인삼이라고 불렀고 개성지방에서 많이 재배하여왔다고 하여 개성고려인삼, 개성인삼이라고도 하였다.

오늘도 개성지방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고유한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함으로써 그의 약성분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은 예로부터 장생, 불로 등 효능이 높은 명약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도 그 수요가 매우 높다.

고려의학에서는 인삼이 심장을 비롯한 내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 가슴아픔, 설사, 밥맛잃기 등에 효과가 있으며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삼의 신비한 약효의 원인이 사포닌과 같은 특이한 성분들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의 약효에 대하여 발표한 론문만 해도 5 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고려인삼은 암세포를 죽이고 전이를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며 당뇨병예방, 스트레스제거 및 피로회복, 기억력증진, 로화방지 등에 특효있다는 내용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개성고려인삼의 인기는 개성고려인삼을 쓰고 고질병을 고친 유럽사람들속에서 더욱 높다.

인삼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음식들도 호평을 받고있다.

인삼은 독성이 없어 사람들이 장기간 섭취해도 피해가 없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순환을 촉진시켜 몸의 신진대사를 돕기때문에 보양음식으로 제격이다.

대표적인 인삼료리는 인삼닭곰이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원기가 없거나 입맛을 잃었을 때, 큰 병을 앓고난후에는 인삼을 넣은 닭곰을 만들어먹었다. 그밖에 인삼추어탕, 인삼누룽지탕, 인삼신선로, 인삼김치 등이 있다.

주체102(2013)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에서는 주체101(2012)년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제12차 전국발명 및 새기술전람회에서 인삼의 풍미를 살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개성고려인삼밀가루와 그 제조방법》의 발명가들에게 최고발명가상을 수여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① 닭인삼탕
② 개성고려원형홍삼
③ 여러가지 인삼제품들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조국통일과 민족의 운명

조선민족의 분렬력사가 어언 69년이 되였다.

해가 바뀔수록, 날이 갈수록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민족의 열망은 더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조국통일은 조선민족의 운명문제이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좌우된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이다.

그러나 지금 조선반도의 한쪽 절반땅에서는 그 자주성이 심히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수십여년세월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그리고 외세의존으로 물젖은 남조선의 력대 집권세력의 정치로 하여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혀왔다.

돌이켜보면 미국의 조선반도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내정간섭과 악랄한 민족분렬책동, 반공화국침략책동으로 하여 조선민족은 이루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하여왔다. 한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근 70년세월, 인간의 한생과도 맞먹는 그 세월 전쟁이라는 쓰라린 아픔도 겪었고 흩어진 가족, 친척이라는 낱말과 더불어 서로가 혈육의 생사조차 알수 없는 마음속고통을 겪어왔다. 그리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세가 지속적으로 흘렀으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세계적으로 갈라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통일을 이루고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오늘 조선민족이 아직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은 커다란 비극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조선민족은 둘로 갈라져서는 결코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다. 그 해결방도는 오직 통일에 있다.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면 후대들도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수 있다.

조국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민족의 운명문제이다.

민족의 운명문제,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이 어떻게 단합하여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단결은 힘이며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앞당겨오는 위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족이라면 그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누구나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 길에서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은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힘찬 걸음을 내딛고있다.

올해에만 놓고보아도 공화국에서는 1월에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을 발표하였고 7월에는 공화국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북과 남이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이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갈데 대한 문제들이 지적되여있다.

남조선인민들도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굴함없이 통일의 구호를 높이 부르며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이밖에 로씨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각지에서 사는 동포들도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극도에 달한 북침핵전쟁침략책동을 규탄하며 조국통일의 목소리를 힘차게 울리였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의 운명문제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북남관계파괴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미국은 력대로 북남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거나 조선반도정세가 완화될듯 한 국면이 조성될 때면 음흉한 간섭과 훼방을 놀군 한다.

올해만 놓고보더라도 1월에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이 발표되고 2월에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여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신심과 희망을 안겨줄때에도 미국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조선반도에 공대지핵미싸일까지 탑재한 핵전략폭격기 《B-52》를 출격시켜 핵광기를 부리는 속에 방대한 침략인원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남조선과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1993년이래 최대규모의 련합상륙훈련에 이어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았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6월 3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특별제안을 발표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으며 7월 7일에는 현시기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을 앞둔 시각에 《죠지 워싱톤》호 핵항공모함전투집단을 조선반도에 들이밀어 해상기동을 동반한 《항공기요격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뿐만아니라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미국은 이 연습에서 《북의 핵, 미싸일사용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미국과 남조선이 핵무력을 비롯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들을 선제타격한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북침핵선제공격계획인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것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하였다.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이러한 사실은 올해에만 있은 일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1960년대초에 남조선에서 통일기운이 급격히 고조되자 《5. 16군사쿠데타》를 조작하여 그것을 가차없이 억누른것도 미국이고 1970년대 7. 4북남공동성명발표로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설레일 때 분렬주의적인 《교차승인론》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그에 차단봉을 내리게 한것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1980년대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가 시작되고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이 오가게 되자 미국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확대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해쳤으며 1990년대에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이 제시되였을 때에는 북침전쟁연습의 재개와 반공화국핵소동으로 그 실현을 가로막아나섰다.

2000년대에 들어와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을 부추

통일애국의 길에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이 자기의 투쟁력사에 년륜〔주체79(1990)년 11월 20일〕을 새긴 때로부터 어느덧 24년,

그 나날 범민련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참으로 자랑스러운 길을 걸어왔다.

민족대단결의 모체로서 범민련이 결성됨으로써 전민족적규모에서 통일의 주체적력량이 강화되고 조국통일운동은 보다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범민련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자기 조직을 강화하고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해내외의 광범한 동포들속에 널리 해설선전하고 그들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그리고 새 세기와 더불어 밝아온 6. 15통일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해 더욱 줄기찬 활동을 벌리였다. 더우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부정하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폭로단죄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는 늘 범민련이 서있었다.

오늘 범민련에 대한 온 민족의 기대와 신뢰는 그 어느때보다도 크다.

현시기 범민련앞에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면서 민족의 단합을 적극 실현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범민련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자주와 애국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통일애국의 기치밑에 굳건히 묶어세우며 온 민족의 단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강화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민족끼리의 견인력을 해내외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깊이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가며 당국의 탄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조직을 사수하고 통일애국투쟁을 중단없이 벌려나가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투쟁도 적극 지지성원해나가고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이 아무리 많아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범민련의 투쟁은 더욱 힘차게 다그쳐지고있다.

윤홍기

겨 동족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면서 좋게 발전하는 북남관계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한것도 바로 미국이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 않고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격화에로 계속 몰아가면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기본장본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엄향심

조선속담 (조급성)

-가랑잎에 불붙기

① 성미가 조급하고 도량이 좁아서 걸핏하면 발끈하고 성을 내기 잘함을 이르는 말.

② 어떤 주장에 호응하거나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것이 몹시 빠른 모양을 비겨이르는 말.

-길가마도 안끓는데 솥가마부터 끓는다

제가 먼저 나설 마당이 아닌데 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함을 비유하여 핀잔조로 이르는 말.

-고기새끼 하나 보고 가마솥 부신다

성미가 급하여 조그마한것을 보고도 지레짐작하고 서두르는것을 롱으로 이르는 말.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일을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틀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솥에 넣은 팥이라도 익어야 먹는다

일에서 반드시 밟아야 할 절차를 가리지 않고 조급하게 굴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나앉는다(기다린다)

너무나 일찍부터 일을 서두르는 행동을 비웃어이르는 말.

참고: 떡방아소리 듣고 김치국 찾는다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지나치게 몹시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행동함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① 콩밭에 서슬치겠다 ② 우물에 가서 숭늉 달란다

고 화

《글씨보는 로인들》

《글씨보는 로인들》은 화가 김명국(17세기 전반기)이 족자를 펼쳐들고 글씨를 감상하는 선비들의 모습을 그린것이다.

족자를 높이 받쳐든 한 아이와 함께 세 선비가 족자의 귀퉁이들을 받들고 서서 글씨를 보며 소견들을 나누고있다.

개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매 인물들의 표정과 몸가짐, 빠른 솜씨로 시원스럽게 그린 옷자락, 번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째이게 처리한 배경 등이 서로 잘 어울려 화가의 높은 기량을 보여주고있다.

*　　*　　*

박연의 계곡　　본사기자 박창복

단풍으로 붉게 물든 산천과 아호비령산줄기의 성거산과 천마산사이의 험준한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구슬같은 맑은 물이 고인 박연의 계곡,

봄철에는 진달래, 철쭉, 살구, 돌배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짙은 록음속의 목란이 향기를 풍기지만 단풍으로 붉게 물든 박연의 계곡의 가을경치가 으뜸인듯 하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482144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